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46-1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질병관리청-한국리서치 특별기획]

2025년 상반기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조사

2025. 9. 3.

담당자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소영선 주무관

e-mail | s0913@korea.kr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송인혜 인턴연구원

e-mail | dlsp0318@naver.com

1 들어가는 말

감염병 유행 시 국민의 인식과 태도는 방역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신종감염병 유행 초기 국민·언론·유관기관 대상 위기소통과 기관 신뢰도 확보는 위기상황 관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민의 정책 참여도는 감염병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감염병 대응 정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대응 정책의 수립과 평가, 향후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연2회 감염병 관련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조사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사회적 인식, 감염병 대응 경험, 정보 신뢰도 및 정책 수용성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여 조사 문항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개편은 사회 환경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일부 문항은 과거 조사와의 직접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현재 시점의 국민 인식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하반기 조사결과와 비교·분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감염병 재난상황에서도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소통환경 구축을 위해 가짜뉴스 접촉 경험과 가짜뉴스 접촉시 일반 국민의 행태, 그리고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보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신종감염병 위험 인식 및 영향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신뢰도 ▲백신과 예방접종 인식 ▲정보 수용 및 정책 참여 태도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감염병 위기 시 국민의 수용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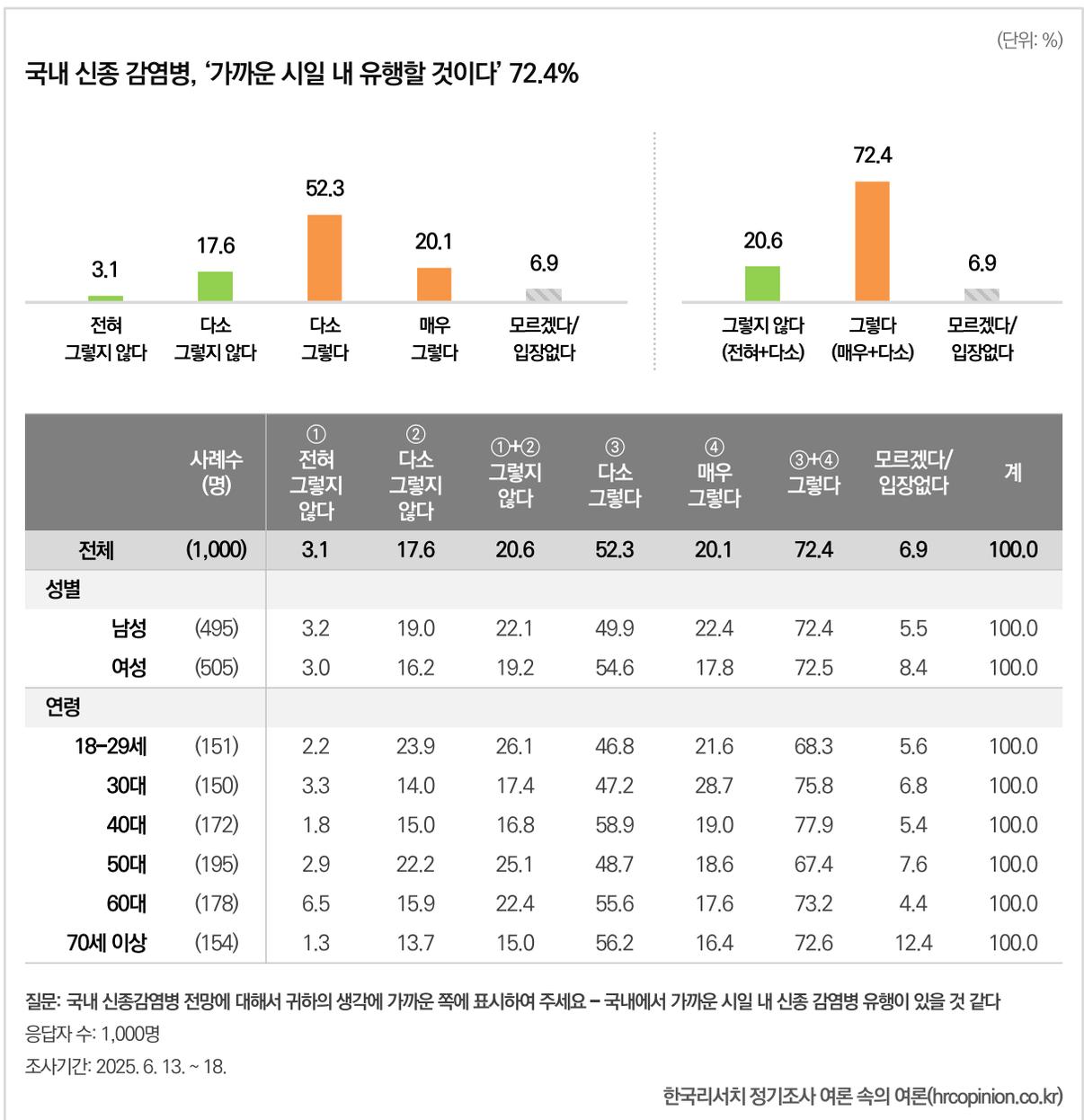
※ 본 조사의 주요 설문 문항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문항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 전문가소통자문단의 감수를 거쳐 활용함.

2

신종 감염병 인식

가까운 시일 내 ‘국내 신종 감염병 유행(72.4%)’ 및 ‘대유행 장기간 지속될 것(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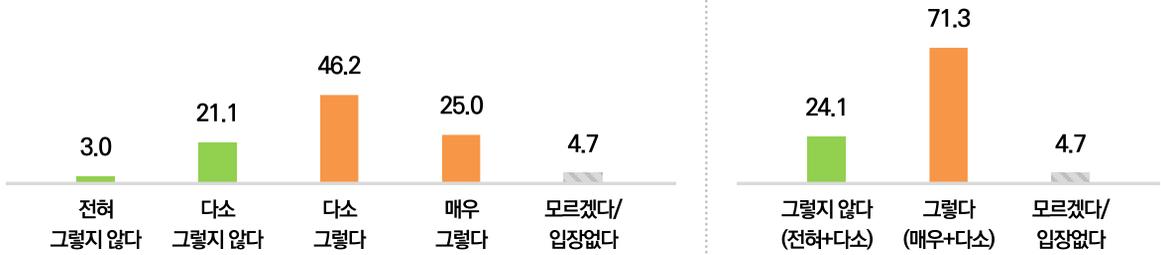
‘국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신종 감염병 유행이 있을 것 같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사람은 72.4%(매우 그렇다 20.1%+다소 그렇다 52.3%),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0.6%(전혀 그렇지 않다 3.1%+다소 그렇지 않다 17.6%)이다. ‘모름/입장 없음’은 6.9%이다.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신종 감염병 유행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장기간(1년 이상) 지속될 것 같다’라는 진술에 동의하는 사람은 71.3%(매우 그렇다 25.0%+다소 그렇다 46.2%),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4.1%(전혀 그렇지 않다 3.0%+다소 그렇지 않다 21.1%)이다. ‘모름/입장 없음’은 4.7%이다.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이 70% 내외로 높다.

(단위: %)

국내 신종 감염병, ‘장기간 유행할 것이다’ 71.3%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다소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 다소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모르겠다/ 입장없다	계
전체	(1,000)	3.0	21.1	24.1	46.2	25.0	71.3	4.7	100.0
성별									
남성	(495)	3.0	21.7	24.7	44.5	26.3	70.8	4.5	100.0
여성	(505)	3.0	20.5	23.4	47.9	23.8	71.7	4.9	100.0
연령									
18-29세	(151)	2.2	22.4	24.6	39.0	31.1	70.1	5.3	100.0
30대	(150)	3.4	19.4	22.8	39.0	31.4	70.4	6.8	100.0
40대	(172)	1.2	28.6	29.7	44.6	22.8	67.4	2.9	100.0
50대	(195)	4.3	21.8	26.2	50.9	19.4	70.3	3.5	100.0
60대	(178)	5.0	15.2	20.2	51.2	25.3	76.5	3.3	100.0
70세 이상	(154)	1.4	18.8	20.2	50.6	22.1	72.7	7.1	100.0

질문: 국내 신종감염병 전망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에 가까운 쪽에 표시하여 주세요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한다면 장기간 지속될 것 같다(* 신종감염병 예시: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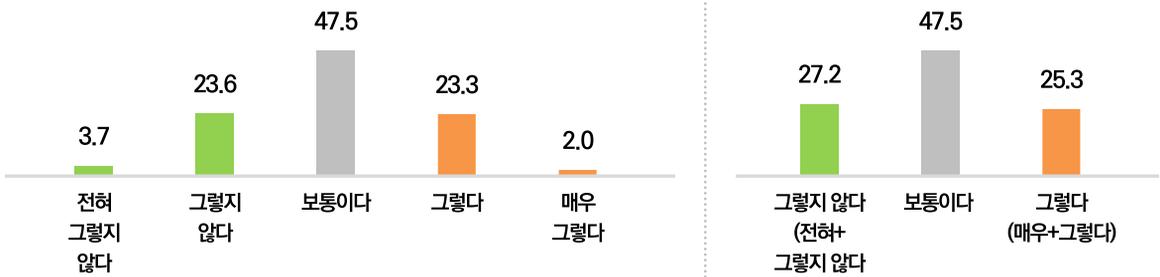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신종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25.3%, ‘안전하지 않다’ 27.2%

우리나라가 신종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5.3%(매우 그렇다 2.0%+그렇다 23.3%),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7.2%(전혀 그렇지 않다 3.7%+그렇지 않다 23.6%)이다. 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고, ‘보통이다’라고 평가한 응답이 47.5%로 가장 높다. 세대 간 큰 차이 없이 안전성 인식이 혼재한 가운데 동일 세대 내 안전 인식을 살펴보면, 18~29세와 60대는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안전하다는 인식보다 10%포인트 가량 높다(18~29세 안전하다 20.6%, 안전하지 않다 29.8% // 60대 안전하다 20.3%, 안전하지 않다 33.2%).

(단위: %)

신종 감염병 위험 인식은 ‘안전하다(25.3%)’, ‘안전하지 않다(23.3%)’ 큰 차이 없어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다소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④+⑤ 그렇다	계
전체	(1,000)	3.7	23.6	27.2	47.5	23.3	2.0	25.3	100.0
성별									
남성	(495)	3.6	21.0	24.6	47.8	25.1	2.5	27.6	100.0
여성	(505)	3.7	26.1	29.8	47.3	21.5	1.5	22.9	100.0
연령									
18~29세	(151)	3.9	25.9	29.8	49.6	18.2	2.4	20.6	100.0
30대	(150)	5.2	21.7	26.9	47.3	22.0	3.8	25.8	100.0
40대	(172)	3.3	23.6	26.9	45.9	26.7	0.5	27.2	100.0
50대	(195)	2.9	20.9	23.8	46.0	29.4	0.8	30.2	100.0
60대	(178)	4.3	28.9	33.2	46.5	18.8	1.5	20.3	100.0
70세 이상	(154)	2.5	20.3	22.8	50.6	23.1	3.5	26.6	100.0

질문: 귀하는 우리나라가 신종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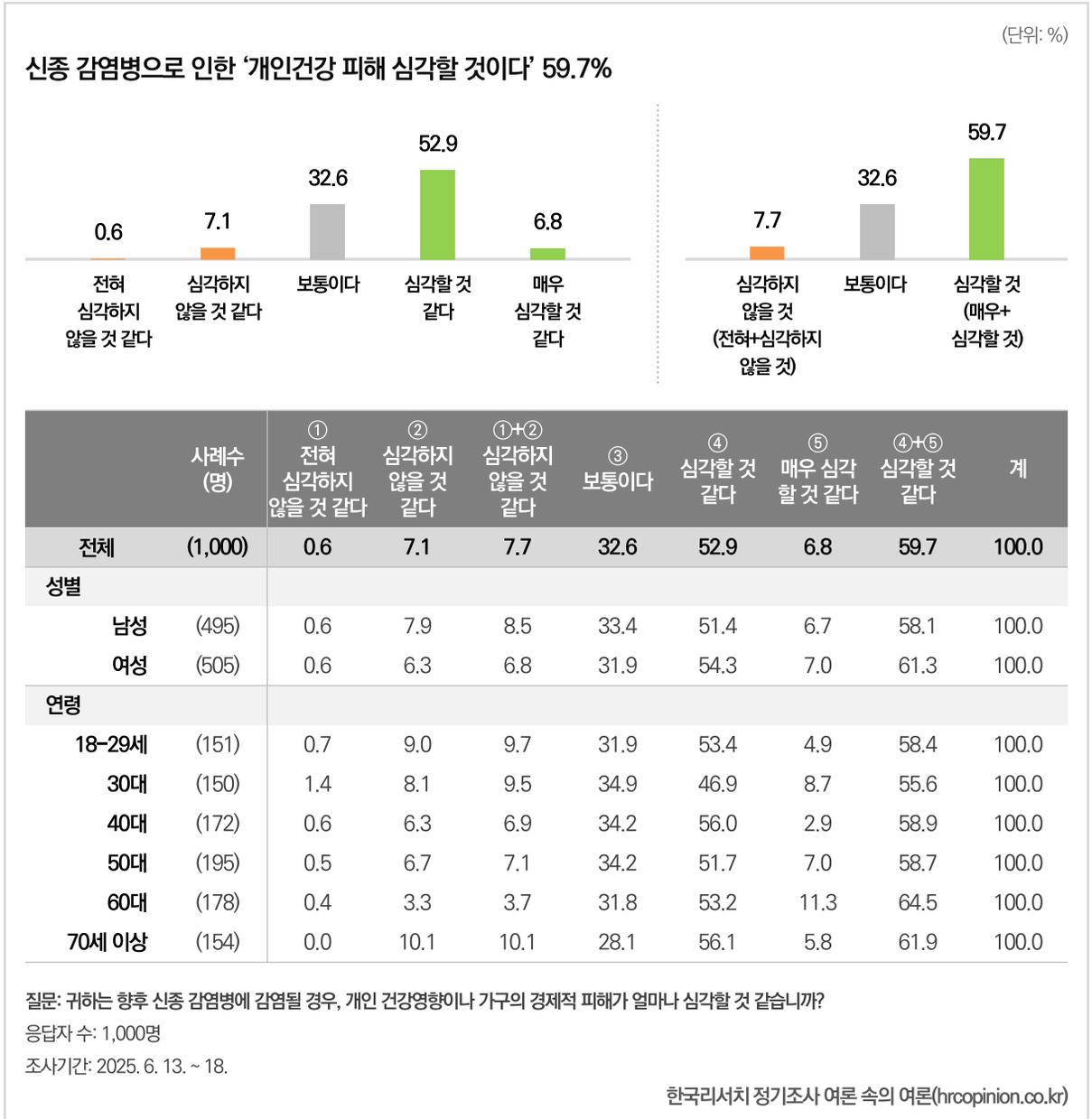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0명 중 6명, 신종 감염병 감염 시에 ‘개인 건강(59.7%)’과 ‘가구 경제 피해(58.6%)’ 모두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해 10명 중 8명 이상, 신종 감염병은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와 ‘사회·경제’를 위협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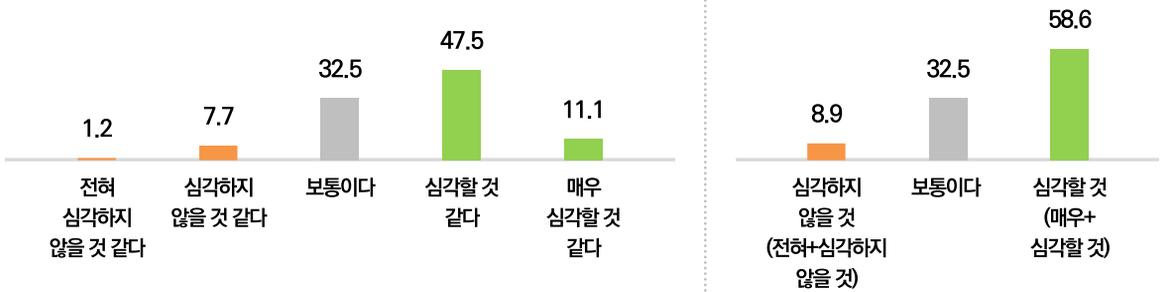
향후 신종 감염병에 감염될 경우 59.7%(매우 심각할 것 같다 6.8%+심각할 것 같다 52.9%)의 대다수가 개인건강에 피해가 ‘심각할 것 같다’고 답했다. ‘보통이다’ 32.6%,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인식은 7.7%(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0.6%+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7.1%)에 그친다. 성, 나이대와 관계없이 개인건강 피해를 우려한다.



향후 신종 감염병에 감염될 경우 58.6%(매우 심각할 것 같다 11.1%+심각할 것 같다 47.5%)의 대다수가 가구 경제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보통이다' 32.5%,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8.9%(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1.2%+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7.7%)에 그친다. 성, 나시대와 관계없이 가구 경제피해 우려한다.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가구 경제피해 심각할 것이다' 58.6%

(단위: %)



	사례수 (명)	① 전혀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②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①+②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할 것 같다	⑤ 매우 심각 할 것 같다	④+⑤ 심각할 것 같다	계
전체	(1,000)	1.2	7.7	8.9	32.5	47.5	11.1	58.6	100.0
성별									
남성	(495)	1.5	7.6	9.1	31.0	48.4	11.6	60.0	100.0
여성	(505)	0.9	7.8	8.7	34.1	46.5	10.7	57.2	100.0
연령									
18-29세	(151)	3.1	9.2	12.3	28.4	46.7	12.6	59.3	100.0
30대	(150)	1.5	8.9	10.4	35.8	41.2	12.6	53.8	100.0
40대	(172)	1.0	4.6	5.6	34.8	45.4	14.3	59.7	100.0
50대	(195)	1.4	7.1	8.6	30.5	50.6	10.4	61.0	100.0
60대	(178)	0.0	5.5	5.5	31.4	52.4	10.7	63.1	100.0
70세 이상	(154)	0.5	11.6	12.2	34.8	47.0	6.0	53.0	100.0

질문: 귀하는 향후 신종 감염병에 감염될 경우, 개인 건강영향이나 가구의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심각할 것 같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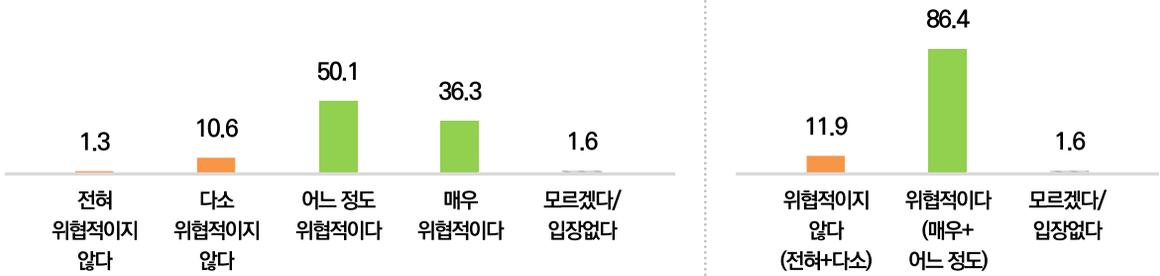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향후 신종 감염병은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에 '위험적'이라는 인식이 86.4%(매우 위험적이다 36.3%+어느 정도 위험적이다 50.1%)로 대다수이다. '위험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1.9%(전혀 위험적이지 않다 1.3%+다소 위험적이지 않다 10.6%), '모름/입장 없음'은 1.6%이다. 전 세대에서 80% 이상이 공중보건체계에 위험적이라는 인식이다.

신종 감염병은 '공중보건체계에 위험적이다' 86.4%

(단위: %)



	사례수 (명)	① 전혀 위험적이지 않다	② 다소 위험적이지 않다	①+② 위험적이지 않다	③ 어느 정도 위험적이다	④ 매우 위험적이다	③+④ 위험적이다	모르겠다/입장없다	계
전체	(1,000)	1.3	10.6	11.9	50.1	36.3	86.4	1.6	100.0
성별									
남성	(495)	1.5	12.5	14.0	45.2	39.7	84.9	1.1	100.0
여성	(505)	1.2	8.8	10.0	54.8	33.1	87.9	2.2	100.0
연령									
18~29세	(151)	1.7	11.9	13.6	38.5	44.2	82.7	3.7	100.0
30대	(150)	1.5	11.7	13.2	47.6	36.4	84.0	2.8	100.0
40대	(172)	0.5	12.4	12.9	52.9	33.0	85.9	1.2	100.0
50대	(195)	1.3	10.0	11.3	49.6	38.5	88.2	0.5	100.0
60대	(178)	1.5	9.7	11.3	51.7	35.9	87.6	1.1	100.0
70세 이상	(154)	1.3	8.2	9.6	59.3	30.0	89.3	1.1	100.0

질문: 향후 신종 감염병은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에 얼마나 위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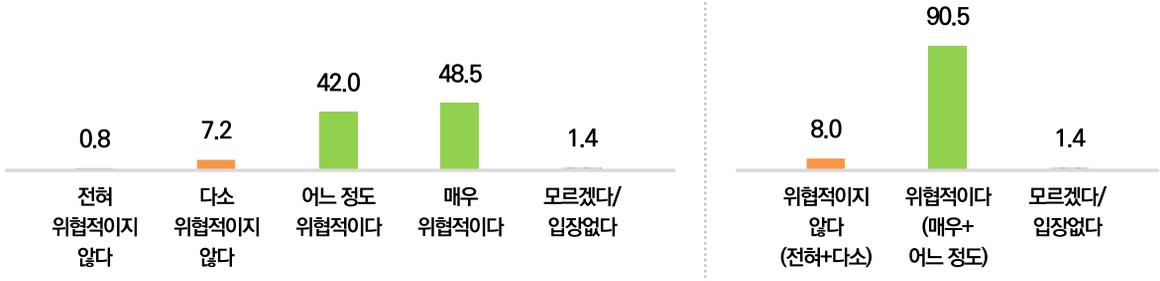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향후 신종 감염병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 90.5%(매우 위협적이다 48.5%+어느 정도 위협적이다 42.0%)로 대다수이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8.0%(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0.8%+다소 위협적이지 않다 7.2%), '모름/입장 없음'은 1.4%이다. 전 세대에서 90% 가량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이고, 2·30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사회경제에 매우 위협적이라는 인식이다.

신종 감염병은 '사회·경제에 위협적이다' 90.5%

(단위: %)



	사례수 (명)	①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	② 다소 위협적이지 않다	①+② 위협적이지 않다	③ 어느 정도 위협적이다	④ 매우 위협적이다	③+④ 위협적이다	모르겠다/입장없다	계
전체	(1,000)	0.8	7.2	8.0	42.0	48.5	90.5	1.4	100.0
성별									
남성	(495)	0.9	8.5	9.4	38.9	50.7	89.5	1.1	100.0
여성	(505)	0.8	5.9	6.7	45.1	46.5	91.5	1.8	100.0
연령									
18-29세	(151)	0.8	3.9	4.6	33.0	60.0	93.0	2.4	100.0
30대	(150)	2.2	3.8	5.9	38.7	51.2	89.9	4.1	100.0
40대	(172)	0.0	8.9	8.9	46.8	43.1	89.9	1.2	100.0
50대	(195)	1.0	9.2	10.1	43.3	46.1	89.3	0.5	100.0
60대	(178)	1.1	9.4	10.5	40.3	48.6	89.0	0.6	100.0
70세 이상	(154)	0.0	6.8	6.8	49.1	43.7	92.8	0.5	100.0

질문: 향후 신종 감염병은 우리나라 사회·경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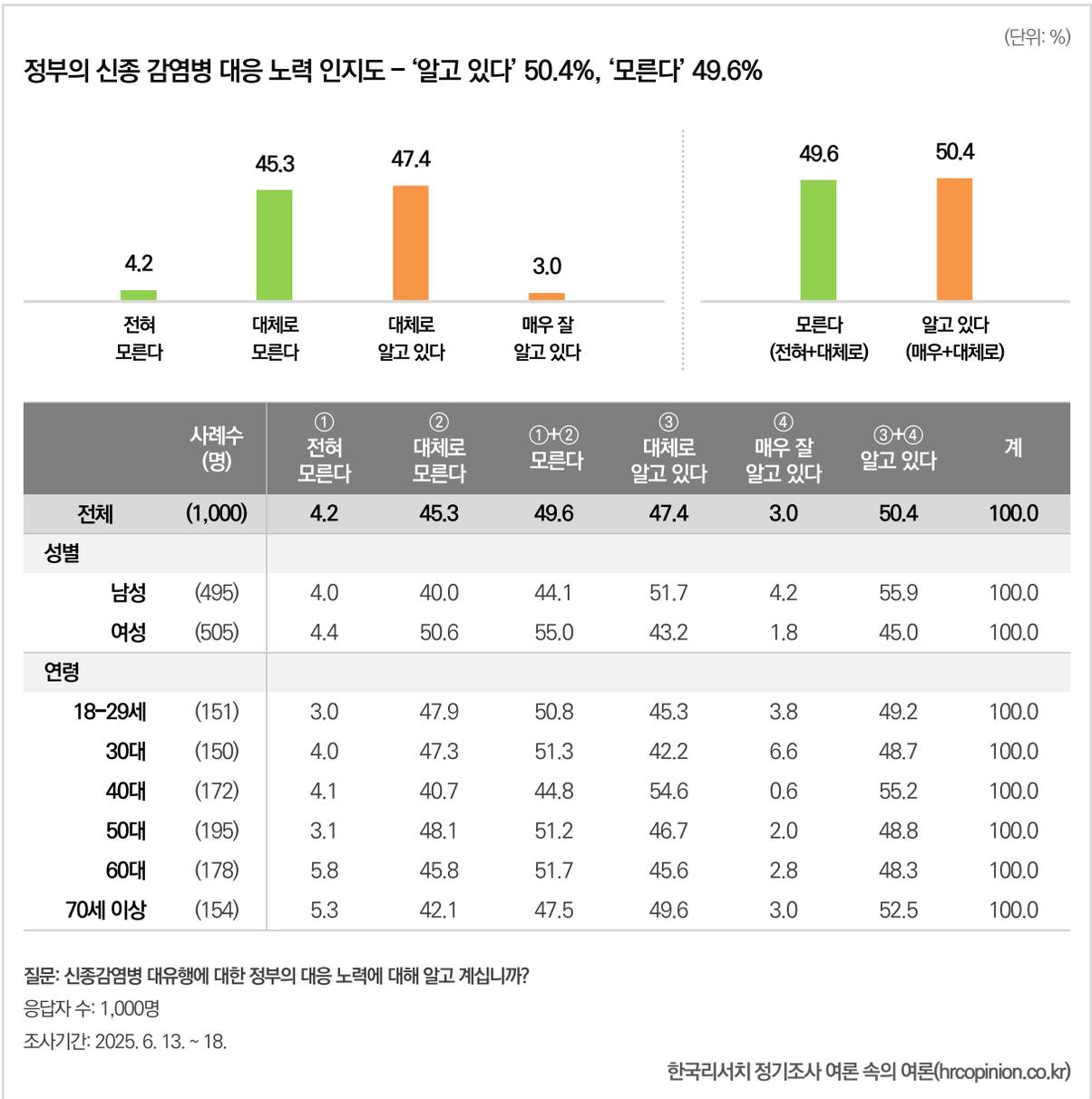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정부당국의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와 대응 역량 강화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 '알고 있다(50.4%)' 절반 수준에 그쳐
정부는 신종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해 대비 및 대응 '잘하고 있어', 72.5%**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4%(매우 잘 알고 있다 3.0%+대체로 알고 있다 47.4%)이다. '모른다'는 응답도 49.6%(전혀 모른다 4.2%+대체로 모른다 45.3%)로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절반 수준에 그친다. 모든 세대에서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해 아는 사람은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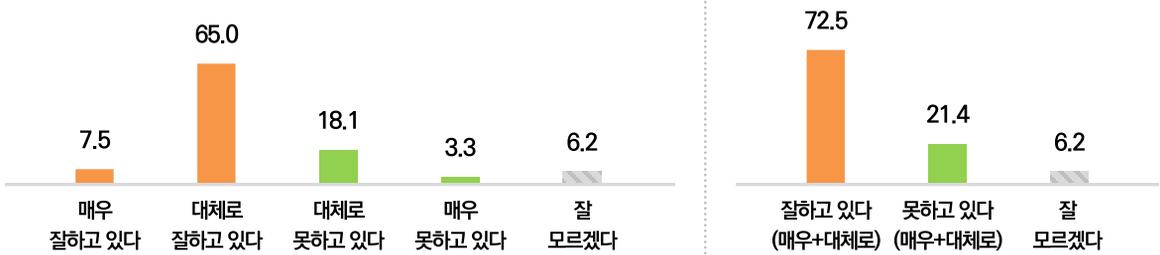


신종 감염병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을 알고 있는 504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응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확인했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대비·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사람은 72.5%(매우 잘하고 있다 7.5%+대체로 잘하고 있다 65.0%),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1.4%(매우 못하고 있다 3.3%+대체로 못하고 있다 18.1%)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2%이다.

3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대다수가 정부의 대비 및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18~29세는 66.4%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60대 81.3%, 70세 이상 78.3%가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30대는 긍정 평가가 48.5%로 부정 평가(39.0%)보다 높지만, 세대 중 긍정 평가가 가장 낮다.

(단위: %)

정부의 신종 감염병 대응 노력 평가 - ‘잘하고 있다’ 72.5%, ‘못하고 있다’ 21.4%



	사례수 (명)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①+② 잘하고 있다	③ 대체로 못하고 있다	④ 매우 못하고 있다	③+④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504)	7.5	65.0	72.5	18.1	3.3	21.4	6.2	100.0
성별									
남성	(277)	9.0	66.3	75.3	14.7	4.2	18.9	5.7	100.0
여성	(227)	5.7	63.3	69.0	22.2	2.2	24.4	6.6	100.0
연령									
18~29세	(74)	4.8	61.6	66.4	22.3	6.3	28.6	5.1	100.0
30대	(73)	12.4	36.1	48.5	28.1	11.0	39.0	12.5	100.0
40대	(95)	5.3	67.5	72.7	19.6	1.0	20.7	6.6	100.0
50대	(95)	5.7	76.7	82.4	12.5	1.1	13.5	4.0	100.0
60대	(86)	11.5	69.8	81.3	13.3	1.2	14.4	4.3	100.0
70세 이상	(81)	6.0	72.3	78.3	15.0	1.4	16.3	5.3	100.0

질문: 신종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대비·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정부의 신종감염병 대응 노력을 인지하고 있는 5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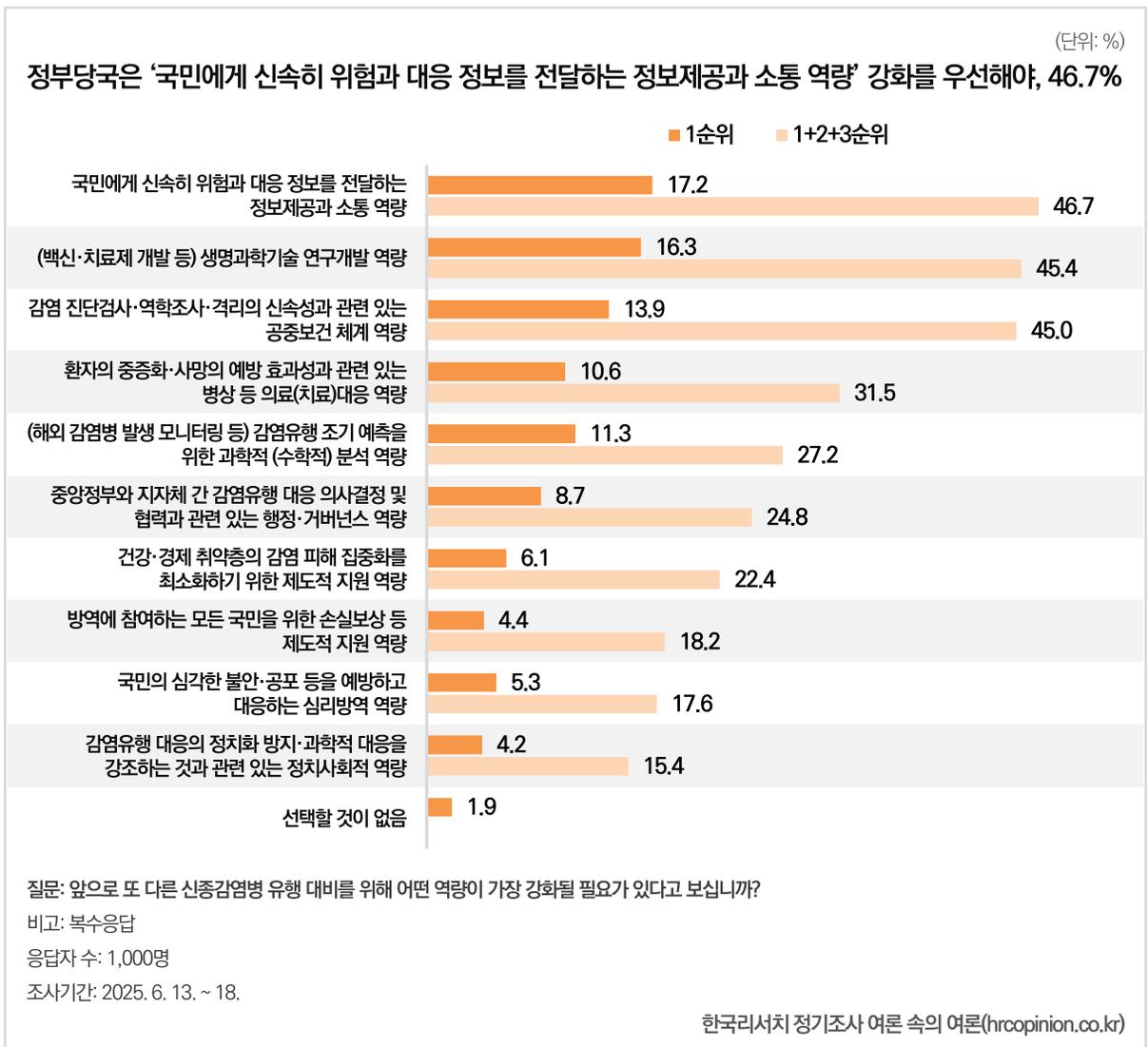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 강화 가장 필요해(46.7%) 이어서 ‘연구개발(45.4%)’, ‘공중보건 체계(45.0%)’ 역량 강화 필요해

앞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가장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정부당국의 역량 10가지를 제시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46.7%)’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어서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45.4%)’, ‘감염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의 신속성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체계 역량(45.0%)’ 순이다. 10명 중 4~5명은 소통과 연구개발, 공중보건 체계 역량 강화를 우선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환자의 중증화·사망의 예방 효과성과 관련 있는 병상 등 의료(치료)대응 역량(31.5%)’, ‘(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 감염유행 조기 예측을 위한 과학적(수학적) 분석 역량(27.2%)’,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감염유행 대응 의사결정 및 협력과 관련 있는 행정·거버넌스 역량(24.8%)’, ‘건강·경제 취약층의 감염 피해 집중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역량(22.4%)’ 순으로 높다.

‘방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등 제도적 지원 역량(18.2%)’, ‘국민의 심각한 불안·공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심리방역 역량(17.6%)’, ‘감염유행 대응의 정치화 방지·과학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 있는 정치사회적 역량(15.4%)’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은 10%대에 그쳐,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할 역량의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에 해당한다.



(단위: %)

정부당국은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제공과 소통 역량’ 강화를 우선해야, 46.7%

'1+2+3순위' 응답	사례수 (명)	국민에게 신속히 위험과 대응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제공과 소통 역량	(백신·치료제 개발 등) 생명과학 기술 연구 개발 역량	감염 진단검사·역학조사·격리의 신속성과 관련 있는 공중보건 체계 역량	환자의 중증화·사망의 예방 효과성과 관련 있는 병상 등 의료(치료) 대응 역량	(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등) 감염유행 조기 예측을 위한 과학적(수학적) 분석 역량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감염유행 대응 의사결정 및 협력과 관련 있는 행정·거버넌스 역량	건강·경제 취약층의 감염 피해 집중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역량	방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등 제도적 지원 역량	국민의 심각한 불안·공포 등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심리방역 역량	감염유행 대응의 정치화 방지·과학적 대응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 있는 정치·사회적 역량	선택할 것이 없음
		46.7	45.4	45.0	31.5	27.2	24.8	22.4	18.2	17.6	15.4	
전체	(1,000)	46.7	45.4	45.0	31.5	27.2	24.8	22.4	18.2	17.6	15.4	1.9
성별												
남성	(495)	41.5	45.1	44.1	30.0	25.3	25.7	22.9	23.6	18.4	17.0	2.1
여성	(505)	51.8	45.8	45.9	33.0	29.0	24.0	21.9	12.9	16.7	13.8	1.7
연령												
18-29세	(151)	46.5	44.7	40.8	30.0	30.4	19.7	26.9	20.0	13.5	15.5	4.0
30대	(150)	45.2	46.2	40.1	34.8	24.9	20.0	19.7	26.6	17.5	15.7	3.1
40대	(172)	39.9	40.2	47.6	30.8	24.5	28.0	24.5	23.9	21.0	15.2	1.5
50대	(195)	52.2	48.5	46.3	35.8	22.2	26.7	18.7	14.8	17.2	11.4	2.1
60대	(178)	46.6	47.9	51.6	27.5	26.3	26.4	20.3	15.8	17.0	19.3	0.4
70세 이상	(154)	49.2	44.5	42.1	29.9	36.7	26.8	25.2	8.7	19.1	15.7	0.7

질문: 앞으로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 대비를 위해 어떤 역량이 가장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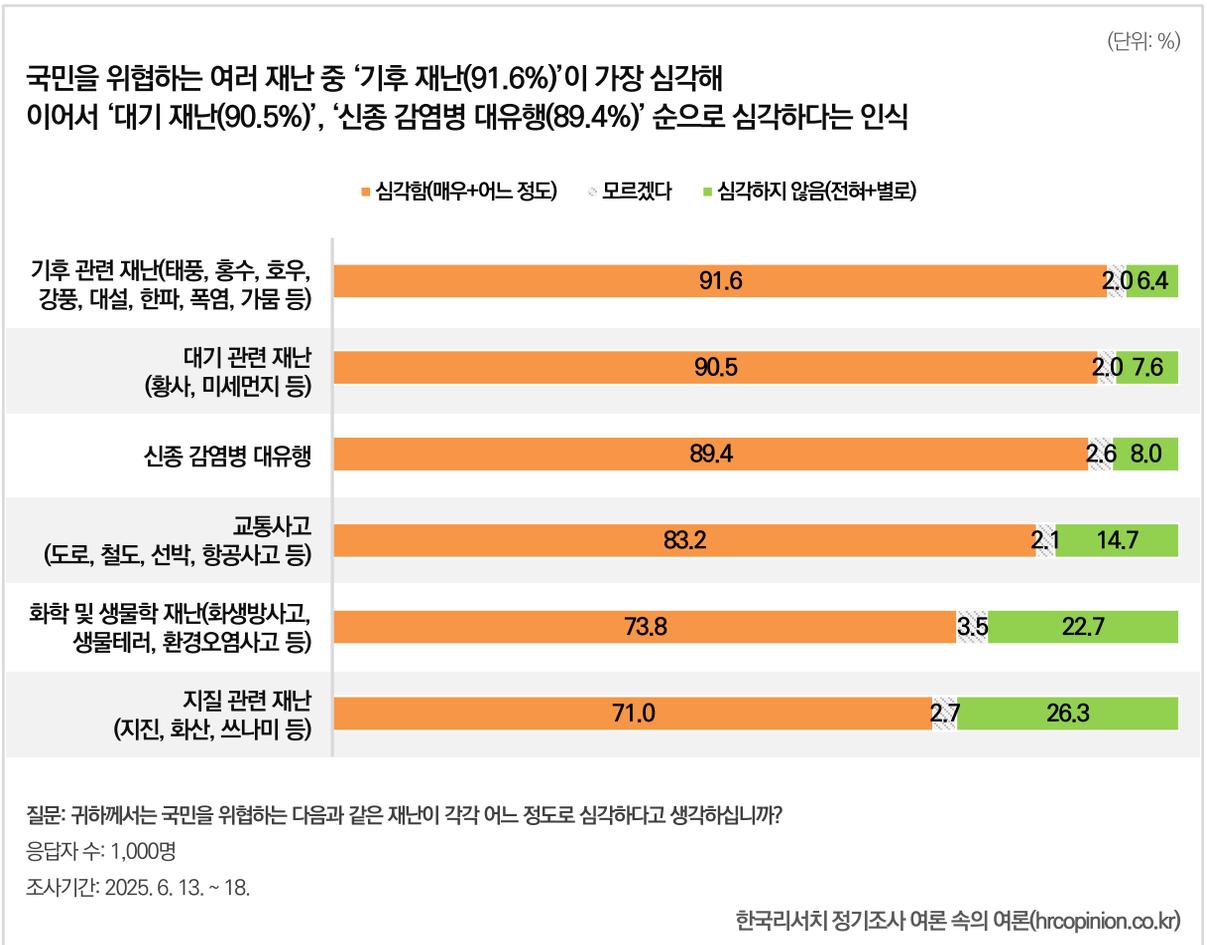
4

감염병 대응 주체에 대한 신뢰

10명 중 9명은 '기후(91.6%)' · '대기(90.5%)' 관련 재난, '신종 감염병 대유행(89.4%)' 심각하다는 인식

국민을 위협하는 여러 재난 중 '기후 관련 재난(태풍, 홍수, 폭염, 가뭄 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91.6%(매우 심각함 45.7%+어느 정도 심각함 45.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대기 관련 재난(황사, 미세먼지 등)' 90.5%(매우 심각함 45.0%+어느 정도 심각함 45.5%), '신종 감염병 대유행' 89.4%(매우 심각함 37.8%+어느 정도 심각함 51.6%) 순이다. '교통사고(도로, 철도, 선박, 항공사고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83.2%(매우 심각함 27.2%+어느 정도 심각함 56.0%)로 높다. '화학 및 생물학 재난(화생방사고, 생물테러, 환경오염사고 등)(73.8%)'과 '지질 관련 재난(지진, 화산, 쓰나미 등)(71.0%)' 심각성 인식은 70% 대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다수가 이를 우려하고 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 응답자 중 재난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감염병 대유행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은 모든 세대에서 3~40%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매우 심각하다'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응답을 합하면, 모든 세대에서 약 90%에 달하는 응답자가 신종 감염병 대유행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단위: %)

**국민을 위협하는 여러 재난 중 ‘기후 재난(91.6%)’이 가장 심각해
이어서 ‘대기 재난(90.5%)’, ‘신종 감염병 대유행(89.4%)’ 순으로 심각하다는 인식**

사례수 (명)	기후 관련 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한파, 폭염, 가뭄 등)		대기 관련 재난 (황사, 미세먼지 등)		신종 감염병 대유행		교통사고 (도로, 철도, 선박, 항공사고 등)		화학 및 생물학 재난 (화생방사고, 생물테 러, 환경오염사고 등)		지질 관련 재난 (지진, 화산 쓰나미 등)	
	매우 심각	심각 (매우+ 어느 정도)	매우 심각	심각 (매우+ 어느 정도)	매우 심각	심각 (매우+ 어느 정도)	매우 심각	심각 (매우+ 어느 정도)	매우 심각	심각 (매우+ 어느 정도)	매우 심각	심각 (매우+ 어느 정도)
전체 (1,000)	45.7	91.6	45.0	90.5	37.8	89.4	27.2	83.2	30.7	73.8	26.4	71.0
성별												
남성 (495)	44.5	90.8	45.4	89.8	38.5	88.6	27.4	81.9	31.8	72.5	25.9	70.4
여성 (505)	46.9	92.5	44.6	91.1	37.0	90.2	27.0	84.5	29.6	75.1	26.8	71.5
연령												
18-29세 (151)	46.6	91.3	43.9	86.5	39.8	88.3	30.9	87.3	34.9	70.3	34.6	72.8
30대 (150)	45.9	90.5	59.4	91.2	39.1	87.8	32.6	83.4	31.6	71.8	30.0	69.9
40대 (172)	45.4	92.6	45.4	89.8	31.0	88.9	34.1	88.2	29.4	71.3	25.4	71.3
50대 (195)	48.1	91.1	44.2	92.5	39.5	88.0	24.9	80.5	30.9	71.6	23.0	70.4
60대 (178)	48.9	93.6	40.6	93.7	38.3	91.9	23.1	81.0	30.8	78.2	23.1	69.2
70세 이상 (154)	38.2	90.5	37.6	88.1	39.2	91.4	18.1	79.5	26.7	79.8	24.0	72.5

질문: 귀하께서는 국민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재난이 각각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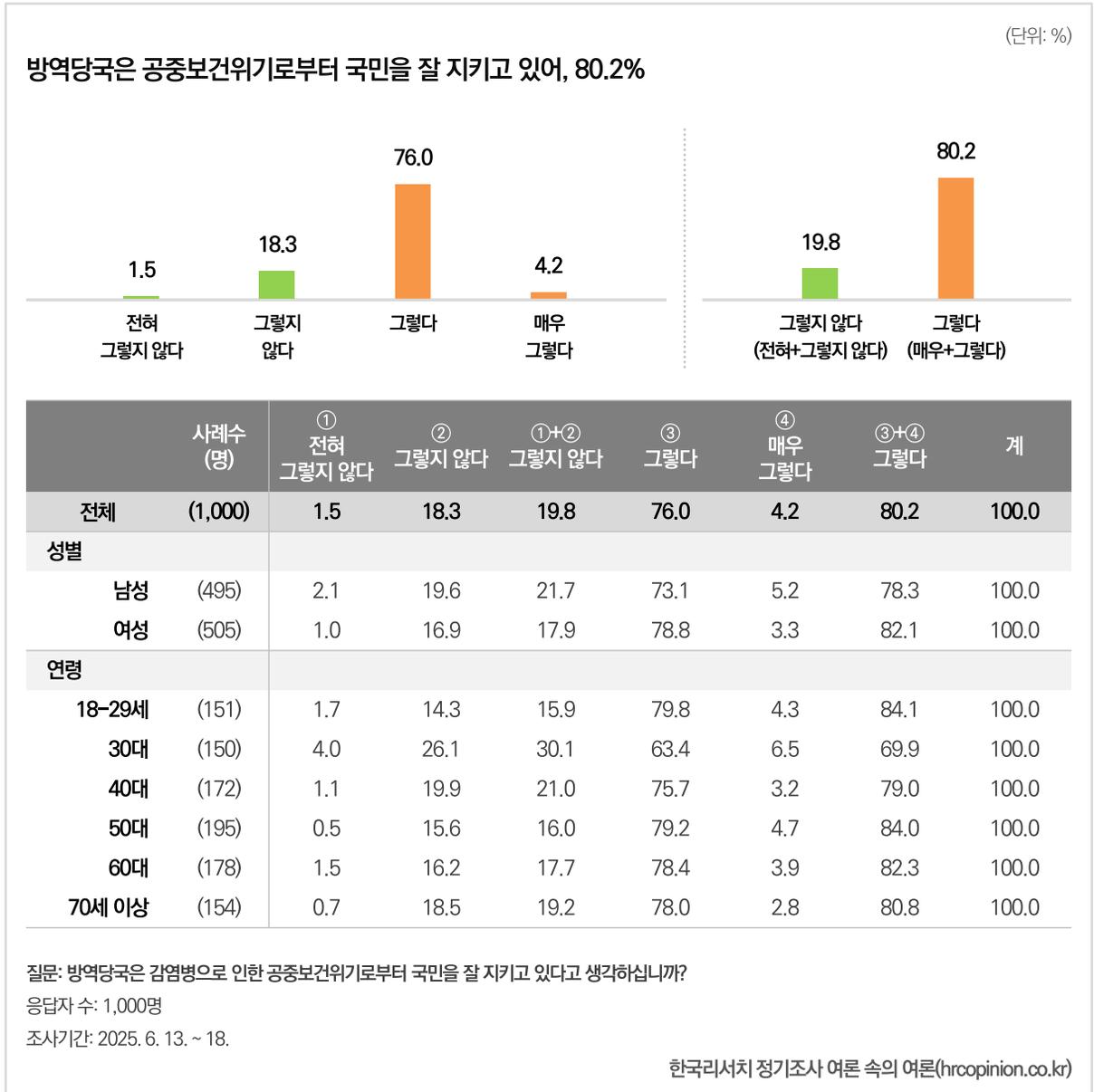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0명 중 8명, 방역당국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잘 지키고 있어(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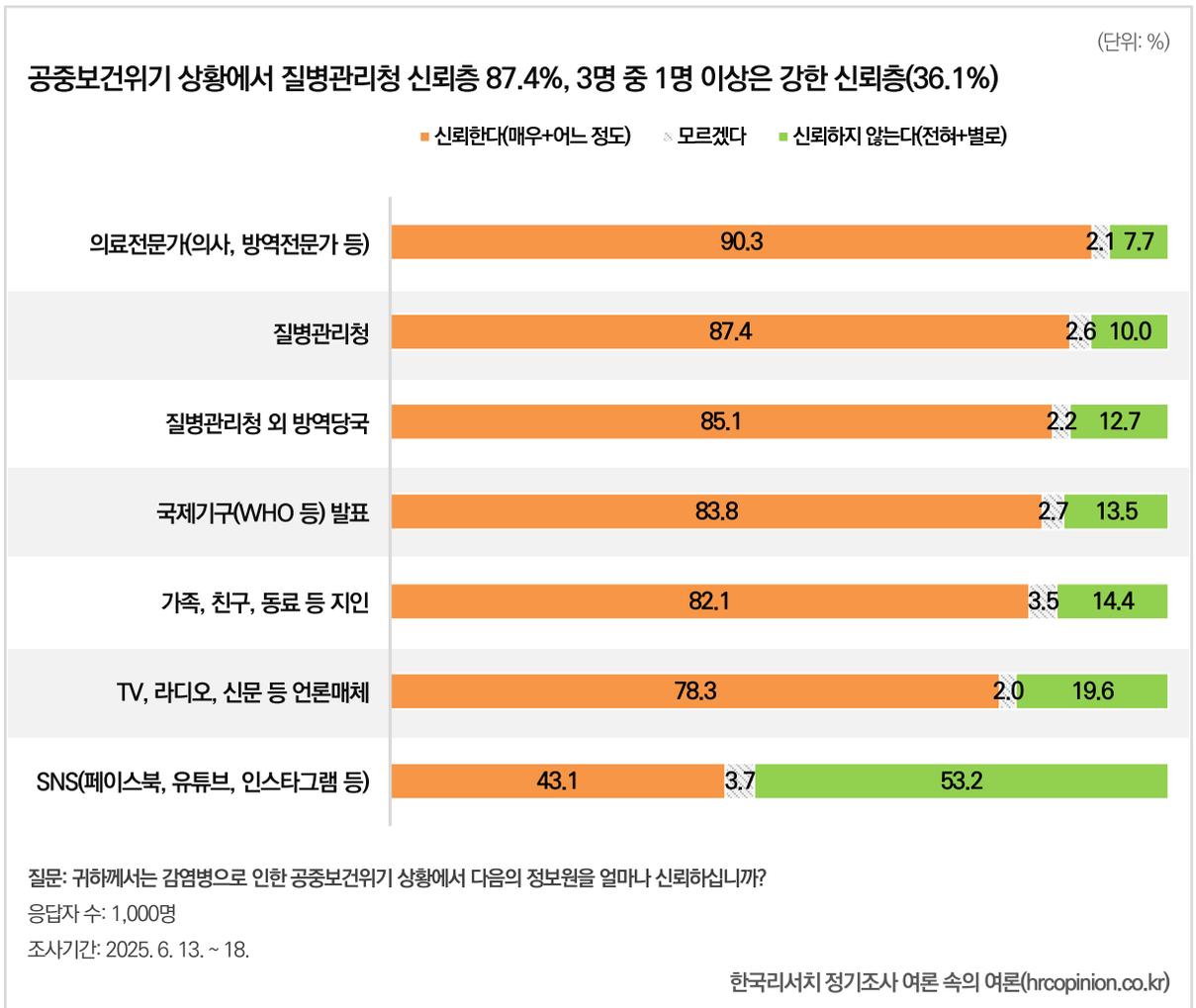
방역당국이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로부터 국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0.2%(매우 그렇다 4.2%+그렇다 76.0%)로, 10명 중 8명이 방역당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8%(전혀 그렇지 않다 1.5%+그렇지 않다 18.3%)에 그친다. 성, 나이와 관계없이 방역당국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질병관리청 '신뢰한다' 87.4%, 강한 신뢰층은 36.1%로 가장 높아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정보원별 신뢰도를 확인했다. '질병관리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87.4%(매우 신뢰한다 36.1%+어느 정도 신뢰한다 51.2%)로 '의료전문가(의사, 방역전문가 등)(90.3%)' 다음으로 높다. 이어서 '질병관리청 외 방역당국(85.1%)', '국제기구(WHO 등) 발표(83.8%)',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인(82.1%)',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78.3%)' 순이다. 'SNS(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3.1%로 가장 낮다.

성, 나이와 관계없이 SNS를 제외한 모든 정보원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다. 질병관리청을 신뢰한다는 응답도 남녀, 모든 세대에서 과반이다. 한편 방역당국이 국민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질병관리청을 신뢰하는 사람은 64.3%, 질병관리청 외 방역당국을 신뢰하는 사람은 58.0%이다. 방역당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뢰 수준은 낮지만, 질병관리청과 이외 방역당국을 신뢰하는 사람이 과반이다.



(단위: %)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질병관리청 신뢰층 87.4%, 3명 중 1명 이상은 강한 신뢰층(36.1%)

사례수 (명)	의료전문가 (의사, 방역전문가 등)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외 방역당국		국제기구 (WHO 등) 발표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인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		SNS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우 신뢰	신뢰 (매우+ 어느 정도)	매우 신뢰	신뢰 (매우+ 어느 정도)	신뢰 (매우+ 어느 정도)	매우 신뢰	신뢰 (매우+ 어느 정도)	매우 신뢰	신뢰 (매우+ 어느 정도)	신뢰 (매우+ 어느 정도)	매우 신뢰	신뢰 (매우+ 어느 정도)	신뢰 (매우+ 어느 정도)	신뢰 (매우+ 어느 정도)	
전체	(1,000)	35.3	90.3	36.1	87.4	28.4	85.1	27.9	83.8	17.2	82.1	18.2	78.3	5.4	43.1
성별															
남성	(495)	37.7	89.5	38.0	85.0	30.9	83.6	30.4	81.4	17.8	82.2	21.1	78.0	6.7	42.3
여성	(505)	32.9	91.1	34.3	89.6	26.1	86.7	25.4	86.2	16.7	82.1	15.5	78.7	4.1	43.9
연령															
18-29세	(151)	28.3	87.0	27.7	89.2	26.0	86.3	32.8	81.4	16.6	74.5	12.2	70.0	4.7	42.6
30대	(150)	30.4	83.7	27.9	75.1	23.4	79.9	24.0	76.1	10.0	70.4	13.9	70.5	5.9	34.7
40대	(172)	33.3	88.5	35.0	84.3	30.4	83.0	26.7	78.6	17.9	82.1	15.8	74.4	3.7	41.3
50대	(195)	40.0	94.2	41.6	91.2	32.5	87.0	26.3	90.1	18.9	89.2	23.1	86.5	6.8	45.3
60대	(178)	40.7	90.5	44.5	89.9	28.1	83.4	28.4	85.7	19.3	87.0	22.6	80.3	4.7	45.7
70세 이상	(154)	37.0	96.5	37.1	93.2	28.8	91.1	29.3	89.3	19.8	86.6	20.0	86.0	6.3	48.0
방역당국의 국민 보호 평가															
잘 지키지 못한다	(198)	17.3	74.8	13.5	64.3	8.3	58.0	14.9	64.5	13.5	69.9	8.3	57.8	1.9	32.0
잘 지킨다	(802)	39.7	94.1	41.7	93.0	33.4	91.8	31.0	88.6	18.2	85.2	20.7	83.4	6.2	45.8

질문: 귀하께서는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다음의 정보원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질병관리청 업무 수행평가, 전반적으로 긍정적 전문성, 신속한 정보 전달, 효과적인 대응력, 공평함, 일관성,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두루 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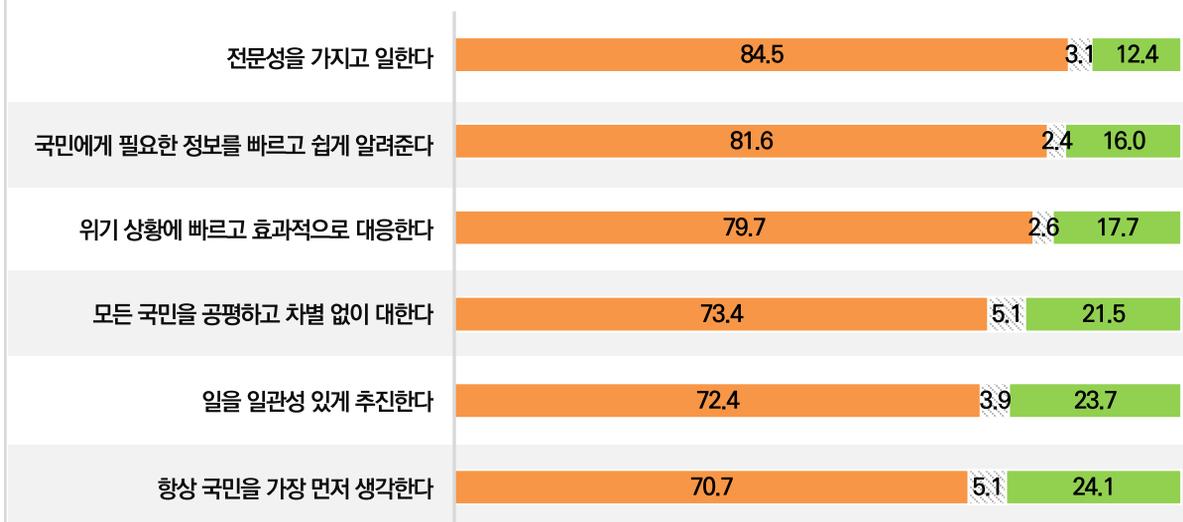
질병관리청에 관한 인식을 6개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한다'가 84.5%(매우 동의한다+어느 정도 동의한다)로 가장 높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려준다(81.6%)', '위기 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79.7%)', '모든 국민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대한다(73.4%)', '일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72.4%)', '항상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70.7%)' 순으로 평가함. 전반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역량 평가는 긍정적이다.

질병관리청에 관한 평가는 성, 나이와 관계없이 전 항목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앞서 방역당국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도 60.4%는 질병관리청의 '전문성'을, 56.8%는 '신속한 정보 전달'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편 '효과적인 대응력(45.9%)', '공평함(44.7%)', '일관성(33.6%)', '국민을 먼저 생각함(37.3%)'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응답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단위: %)

질병관리청 평가 - 10명 중 8명 가량은 '전문성(84.5%)'과 '신속한 정보 전달(81.6%)', '효과적인 대응력(79.7%)' 긍정적으로 평가

■ 동의한다(매우+어느 정도) ◊ 모르겠다/입장없다 ■ 동의하지 않는다(전혀+별로)



질문: 질병관리청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생각은 아래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질병관리청 평가 - 10명 중 8명 가량은 '전문성(84.5%)'과 '신속한 정보 전달(81.6%)', '효과적인 대응력(79.7%)' 긍정적으로 평가

(단위: %)

사례수 (명)	전문성을 가지고 일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알려준다		위기 상황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국민을 공평하고 차별 없이 대한다		일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항상 국민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매우 동의	동의 (매우+ 어느 정도)	매우 동의	동의 (매우+ 어느 정도)	매우 동의	동의 (매우+ 어느 정도)	매우 동의	동의 (매우+ 어느 정도)	매우 동의	동의 (매우+ 어느 정도)	매우 동의	동의 (매우+ 어느 정도)
전체 (1,000)	32.0	84.5	28.2	81.6	27.1	79.7	23.1	73.4	21.7	72.4	21.1	70.7
성별												
남성 (495)	34.4	82.7	29.1	82.6	27.5	78.5	25.8	74.5	24.0	74.2	22.6	72.8
여성 (505)	29.6	86.3	27.4	80.7	26.7	80.8	20.4	72.4	19.4	70.6	19.6	68.7
연령												
18~29세 (151)	34.0	88.2	25.1	77.8	26.0	77.2	21.1	75.7	21.9	73.7	18.7	71.4
30대 (150)	27.8	81.0	28.0	74.8	27.1	71.8	29.2	68.5	24.5	66.4	19.1	67.0
40대 (172)	28.3	82.5	24.6	86.0	25.9	77.9	23.5	72.3	18.3	70.8	22.4	69.7
50대 (195)	33.2	88.9	28.9	82.0	29.0	87.7	25.9	74.1	23.9	75.9	23.1	75.0
60대 (178)	37.3	80.6	32.4	84.5	27.6	81.1	18.2	74.4	20.3	71.2	22.7	68.5
70세 이상 (154)	30.5	85.8	29.6	83.5	26.6	80.1	20.5	75.4	21.4	75.7	19.4	72.1

질문: 질병관리청에 대한 귀하의 전반적인 생각은 아래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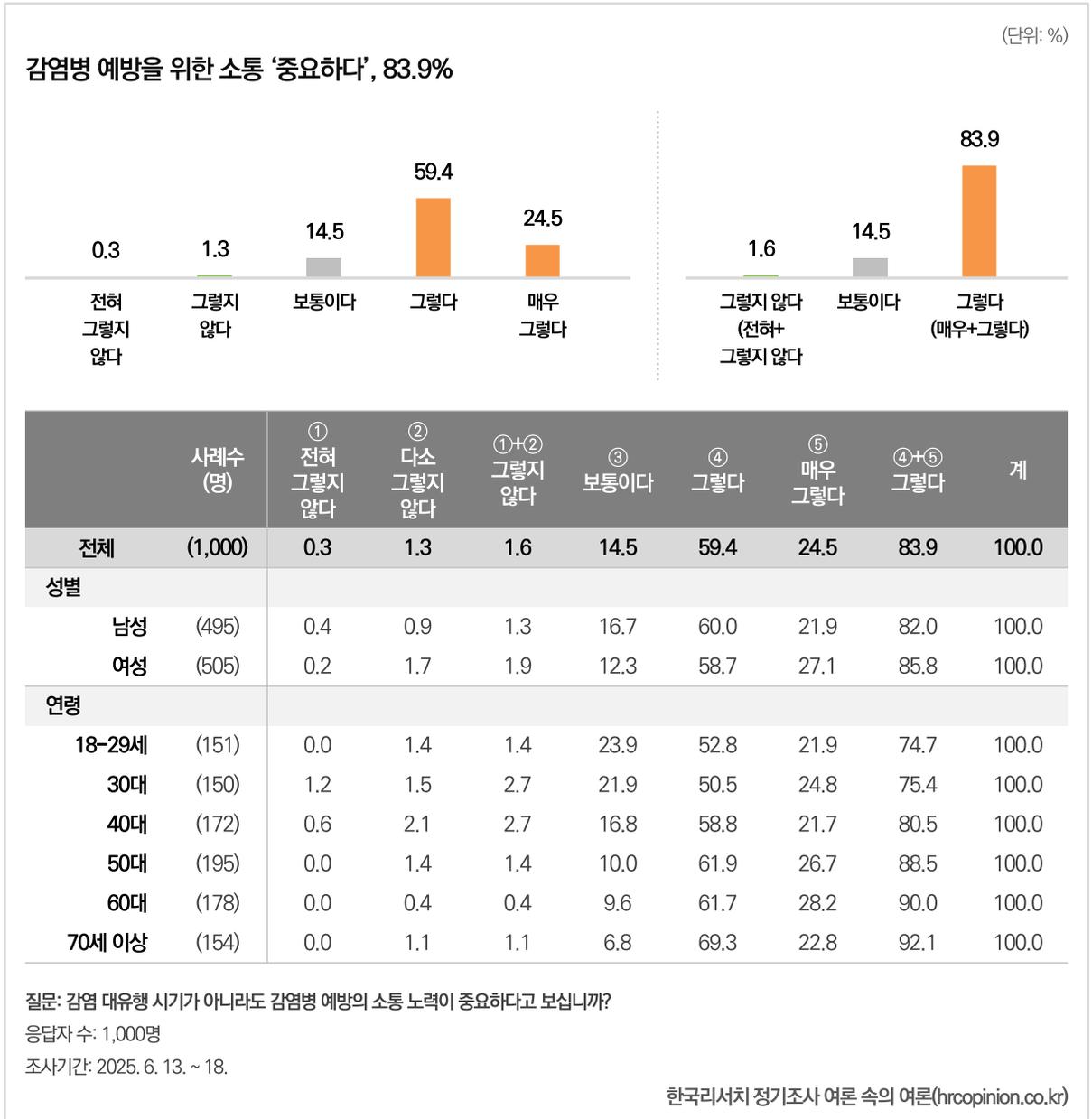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감염병 대유행 시기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통 노력 중요해, 83.9%

‘감염병 대유행 시기가 아니라도 감염병 예방의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은 83.9%(매우 그렇다 24.5%+그렇다 59.4%)로 높은 수준이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6%(전혀 그렇지 않다 0.3%+그렇지 않다 1.3%)로 낮고, ‘보통이다’는 14.5%이다.

나이대별로 보면, 전 나이층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60세 이상(60대 90.0%, 70세 이상 92.1%)에서 90% 이상으로 가장 높고, 30대 이하에서는 중요하다는 인식이 70%대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18~29세 74.7%, 30대 75.4%).



4명 중 1명은 '최근 감염병 유행에 관한 과학적 정보 공유(21.6%)', '예방접종이나 치료제 관련 정보 업데이트(20.9%)'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는 방식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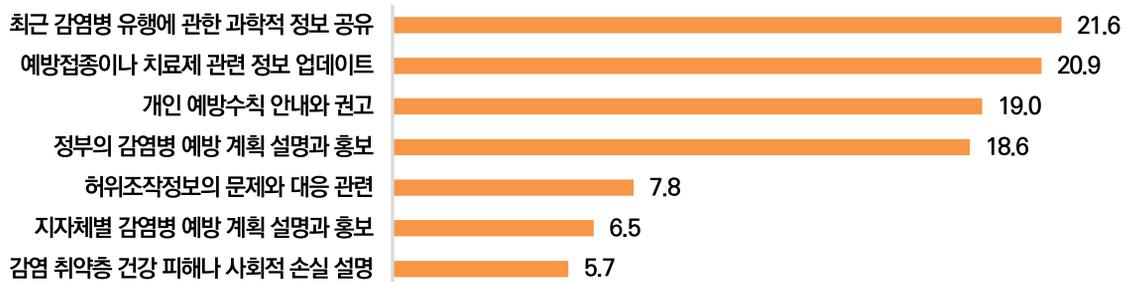
4명 중 1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근 감염병 유행에 관한 과학적 정보 공유(21.6%)', '예방접종이나 치료제 관련 정보 업데이트(20.9%)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어서 '개인 예방수칙 안내와 권고(19.0%)', '정부의 감염병 예방 계획 설명과 홍보(18.6%)'를 꼽는다.

반면 '허위조작정보 문제와 대응(7.8%)', '지자체별 예방계획 설명과 홍보(6.5%)', '감염 취약층 건강 피해나 사회적 손실 설명(5.7%)'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여, 전반적인 소통 방향이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 정보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은 40대 이하에 비해 예방접종이나 치료제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 60대는 '과학적 정보 공유(30.5%)'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해 세대 중 가장 높다. 한편 세대가 낮을수록 허위조작정보 문제와 대응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18~29세에서 가장 높다(17.5%). 세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단위: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과학적 정보 공유(21.6%)', '치료제 관련 정보 업데이트(20.9%)', '개인 수칙 안내(19.0%)', '정부 계획 홍보(18.6%)' 등의 방식으로 소통해야



구분	사례수 (명)	최근 감염병 유행에 관한 과학적 정보 공유	예방접종이나 치료제 관련 정보 업데이트	개인 예방수칙 안내와 권고	정부의 감염병 예방 계획 설명과 홍보	허위조작 정보의 문제와 대응 관련	지자체별 감염병 예방 계획 설명과 홍보	감염 취약층 건강 피해나 사회적 손실 설명	계
전체	(1,000)	21.6	20.9	19.0	18.6	7.8	6.5	5.7	100.0
성별									
남성	(495)	22.8	18.6	17.8	18.3	8.4	7.0	6.9	100.0
여성	(505)	20.3	23.1	20.2	18.9	7.1	6.0	4.5	100.0
연령									
18~29세	(151)	24.9	14.0	14.6	13.1	17.5	8.1	7.7	100.0
30대	(150)	21.7	14.8	24.1	15.3	10.9	8.3	4.9	100.0
40대	(172)	16.8	19.2	20.8	17.6	10.6	7.3	7.7	100.0
50대	(195)	18.9	25.1	19.2	22.1	3.8	6.4	4.5	100.0
60대	(178)	30.5	23.1	18.9	16.0	3.1	4.9	3.4	100.0
70세 이상	(154)	16.5	27.6	16.2	26.9	2.3	4.2	6.2	100.0

질문: 감염병 예방과 관련해, 다음 중 어떤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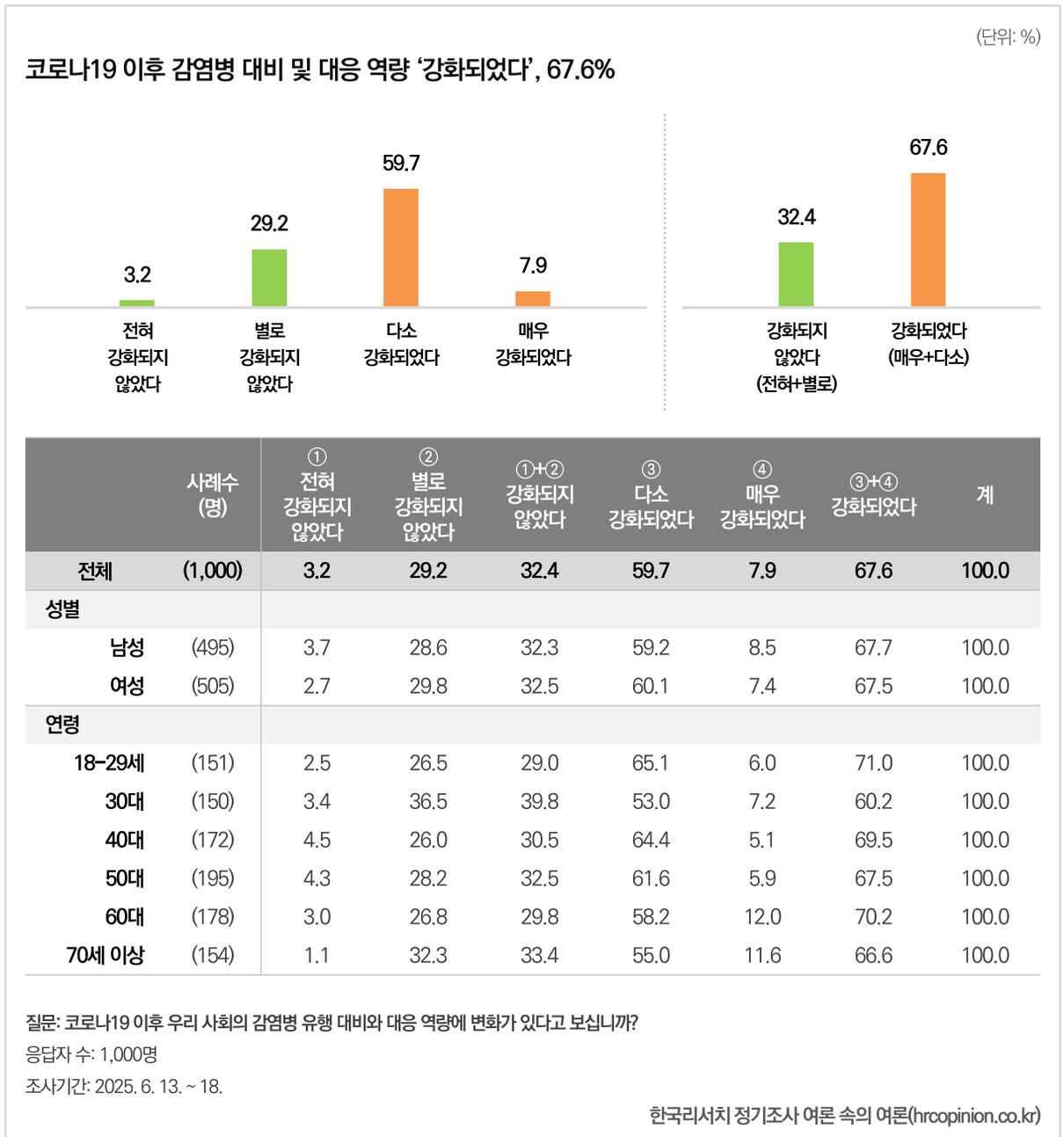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3명 중 2명, 코로나19 이후 대응 역량 변화 인식 긍정적 우리 사회의 감염병 유행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되었다', 67.6% 신종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관심 많다', 65.0%

전체 응답자의 67.6%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감염병 유행 대비 및 대응 역량이 '다소 강화되었다(59.7%)'거나 '매우 강화되었다(7.9%)'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역량이 강화되지 않았다는 인식은 32.4%(전혀 강화되지 않았다 3.2%+별로 강화되지 않았다 29.2%)로 강화되었다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의 두 배 이상 높다.

나이별로 보면, 모든 세대에서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대다수인 가운데 30대 응답자 중 강화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9.8%로 세대 중 가장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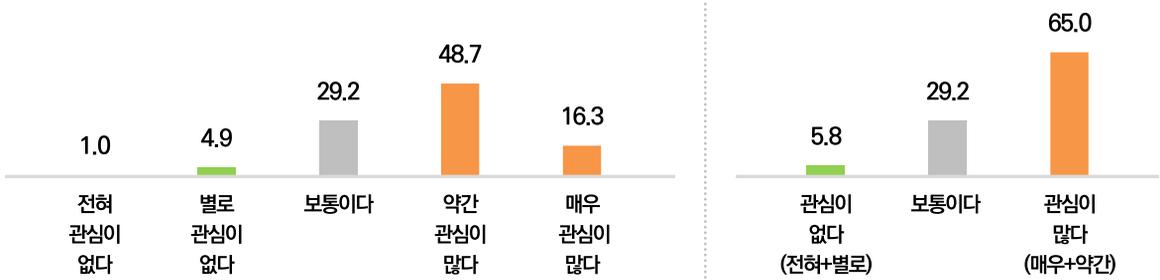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나 뉴스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65.0%, 매우 관심이 많다 16.3%+약간 관심이 많다 48.7%). 대다수가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이 없다’ 5.8%(전혀 관심이 없다 1.0%+별로 관심이 없다 4.9%), ‘보통이다’ 29.2%이다.

모든 세대에서 절반 이상이 관련 정보에 관심이 많다고 답한 가운데, 세대가 올라갈수록 관심도는 높아진다. 60세 이상은 70% 이상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60대 76.8%, 70세 이상 70.7%).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관련 정보에 ‘관심 많다’, 65.0%

(단위: %)



	사례수 (명)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①+②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심이 많다	⑤ 매우 관심이 많다	④+⑤ 관심 많다	계
전체	(1,000)	1.0	4.9	5.8	29.2	48.7	16.3	65.0	100.0
성별									
남성	(495)	2.0	5.0	6.9	28.5	48.9	15.7	64.6	100.0
여성	(505)	0.0	4.8	4.8	29.9	48.5	16.9	65.3	100.0
연령									
18-29세	(151)	1.6	10.0	11.6	36.0	43.8	8.6	52.4	100.0
30대	(150)	2.4	6.2	8.5	37.5	39.2	14.8	53.9	100.0
40대	(172)	0.6	3.6	4.2	33.2	51.1	11.5	62.6	100.0
50대	(195)	0.5	3.9	4.3	25.8	53.1	16.8	69.9	100.0
60대	(178)	1.0	1.5	2.5	20.7	51.5	25.3	76.8	100.0
70세 이상	(154)	0.0	5.1	5.1	24.2	51.1	19.5	70.7	100.0

질문: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나 뉴스 관심은 어떻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의향

개인의 일상방역 실천율 '매우 높은 수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90.4%가 '감염병 확진 및 유증상 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고 있다고 답해, 가장 높은 실천율을 보인다. 매우 잘 실천한다는 응답도 51.3%로 절반 이상이다. 70세 이상은 가장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천하는 세대이다(매우 잘 실천하고 있다 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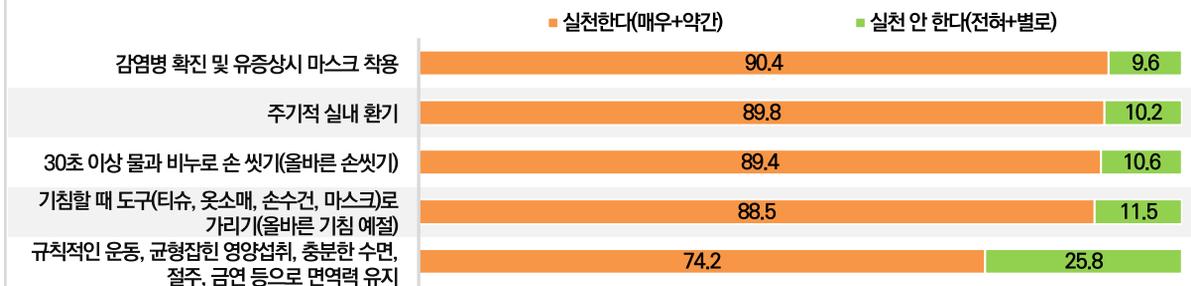
'주기적 실내 환기(89.8%)', '30초 이상 물과 비누로 손 씻기(올바른 손씻기)(89.4%)', '기침할 때 도구(티슈, 옷소매, 손수건, 마스크)로 가리기(올바른 기침 예절)(88.5%)'도 모두 90%에 달하는 높은 실천율을 기록한다.

다만,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섭취, 충분한 수면 등을 통한 면역력 유지(74.2%)'도 다수가 실천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천율을 보인다. 모든 세대에서 개인 수준의 일상방역을 다수 실천하고 있는 가운데, 18~29세(68.2%)와 40대(66.8%)의 면역력 유지 노력은 70%에 못 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단위: %)

개인의 일상방역 실천율 매우 높은 수준

'감염병 확진 및 유증상 시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올바른 손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실천율 90%에 달해



	사례수 (명)	감염병 확진 및 유증상 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실내 환기		30초 이상 물과 비누로 손 씻기 (올바른 손씻기)		기침할 때 도구 (티슈, 옷소매, 손수건, 마스크)로 가리기 (올바른 기침 예절)		규칙적인 운동, 균형잡힌 영양섭취, 충분한 수면, 절주, 금연 등으로 면역력 유지	
		매우 잘 실천	실천 (매우+약간)	매우 잘 실천	실천 (매우+약간)	매우 잘 실천	실천 (매우+약간)	매우 잘 실천	실천 (매우+약간)	매우 잘 실천	실천 (매우+약간)
전체	(1,000)	51.3	90.4	39.9	89.8	31.5	89.4	40.6	88.5	25.5	74.2
성별											
남성	(495)	46.6	89.0	31.7	86.8	24.0	86.5	31.5	84.9	23.3	74.5
여성	(505)	55.9	91.8	47.9	92.9	38.8	92.2	49.5	92.1	27.6	74.0
연령											
18~29세	(151)	44.6	88.4	35.8	86.3	32.8	85.8	40.9	89.5	21.4	68.2
30대	(150)	50.5	89.8	42.9	84.0	41.6	86.8	42.2	87.8	23.8	71.3
40대	(172)	48.8	86.4	38.0	88.5	32.4	88.6	36.1	85.2	19.0	66.8
50대	(195)	49.0	91.8	35.3	89.8	21.1	86.3	37.6	88.5	21.5	73.7
60대	(178)	53.9	94.0	41.5	94.6	30.9	93.0	40.3	87.3	35.2	79.3
70세 이상	(154)	61.0	91.4	47.3	95.1	33.1	96.1	48.0	93.5	32.1	86.0

질문: 귀하는 평소 감염병 예방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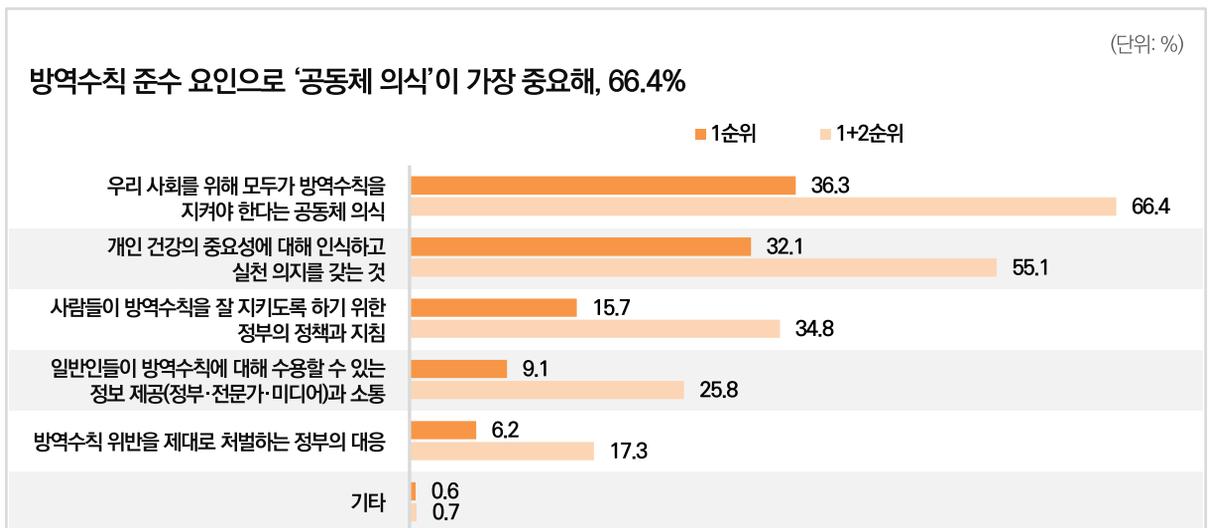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3명 중 2명, 방역수칙 준수에 있어 ‘공동체 의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아 정책적 개입이나 처벌보다는 ‘개인의 실천 의지’와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방역수칙 준수 요인 중 ‘우리 사회를 위해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66.4%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순위, 복수응답). 이어서 55.1%는 ‘개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를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침(34.8%)’, ‘일반인들이 방역수칙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정부·전문가·미디어)과 소통(25.8%)’, ‘방역수칙 위반을 제대로 처벌하는 정부의 대응(17.3%)’ 순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있어 사회적 연대의식과 개인의 책임감이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적 개입이나 처벌 중심의 접근보다는 자발성과 공감에 기반한 소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 기준으로 살펴보면, 방역수칙 준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공동체 의식’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다. 나이별로는 60대에서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는 57.9%로 가장 낮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난다. 한편,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이하에서 20~30%대로 비교적 높으나, 50대 이상에서는 10% 내외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1+2순위’ 응답	사례수 (명)	우리 사회를 위해 모두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	개인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갖는 것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지침	일반인들이 방역수칙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정부·전문가·미디어)과 소통	방역수칙 위반을 제대로 처벌하는 정부의 대응	기타
전체	(1,000)	66.4	55.1	34.8	25.8	17.3	0.7
성별							
남성	(495)	63.1	53.0	36.8	25.0	20.9	1.2
여성	(505)	69.5	57.2	32.8	26.6	13.8	0.2
연령							
18-29세	(151)	67.8	47.8	38.1	23.0	22.3	0.9
30대	(150)	57.9	57.4	33.5	26.0	23.9	1.2
40대	(172)	60.1	51.9	32.1	28.2	27.2	0.4
50대	(195)	68.9	58.8	34.5	27.1	10.7	0.0
60대	(178)	74.7	64.3	31.1	20.6	9.0	0.4
70세 이상	(154)	67.2	48.4	40.2	29.9	12.9	1.3

질문: 나와 주변 사람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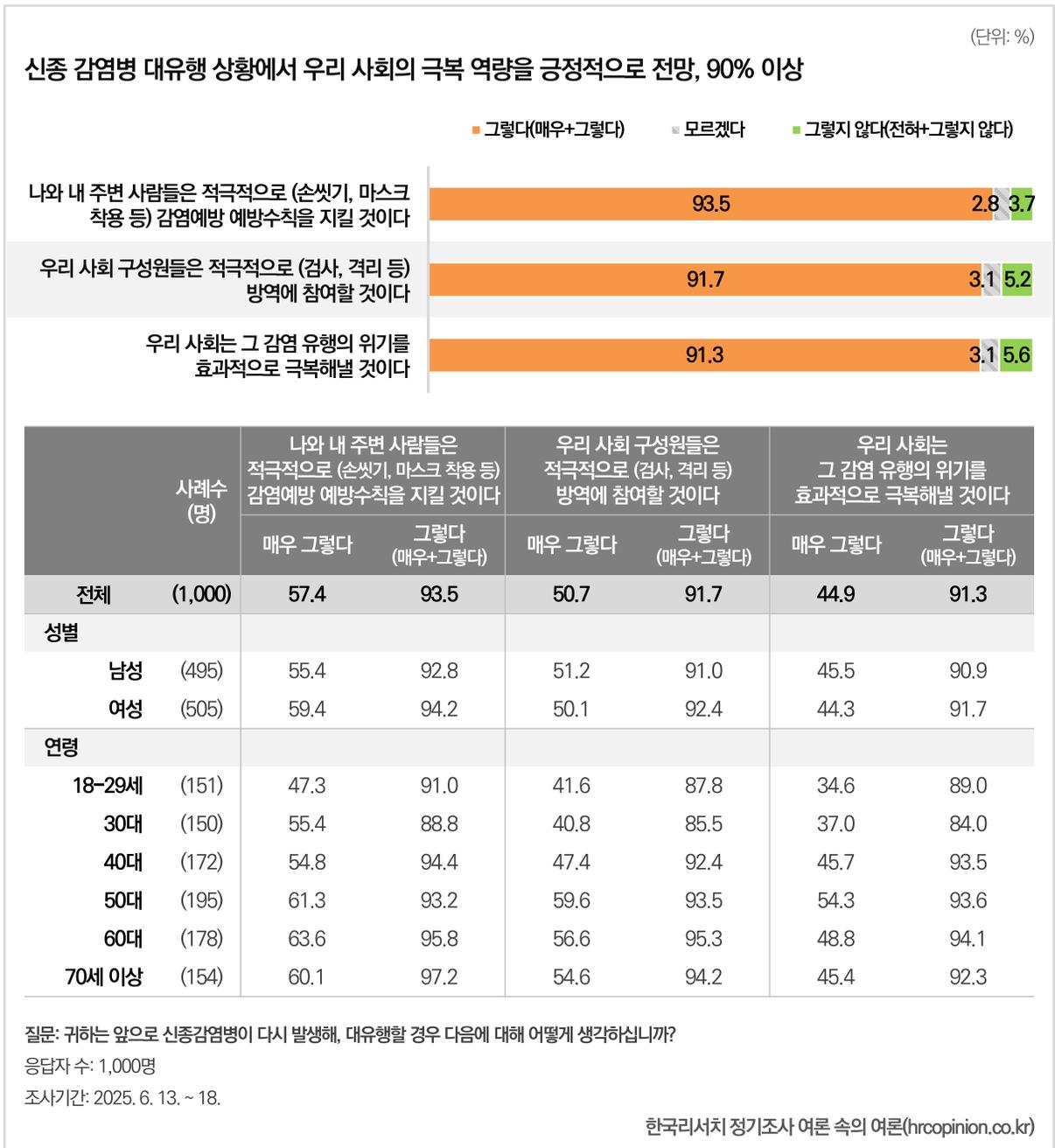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향후 신종 감염병 대유행한다면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극복 역량을 긍정적으로 전망해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할 경우 개인과 우리 사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확인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감염병 예방수칙(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다’라는 진술에 가장 많은 수인 93.5%가 동의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적극적으로 (검사, 격리 등) 방역에 참여할 것이다’는 응답이 91.7%, ‘우리 사회는 감염 유행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91.3%로 뒤를 잇는다. 우리 사회의 극복 가능성과 사회 구성원의 방역 참여 태도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우리 사회와 개인의 참여 역량을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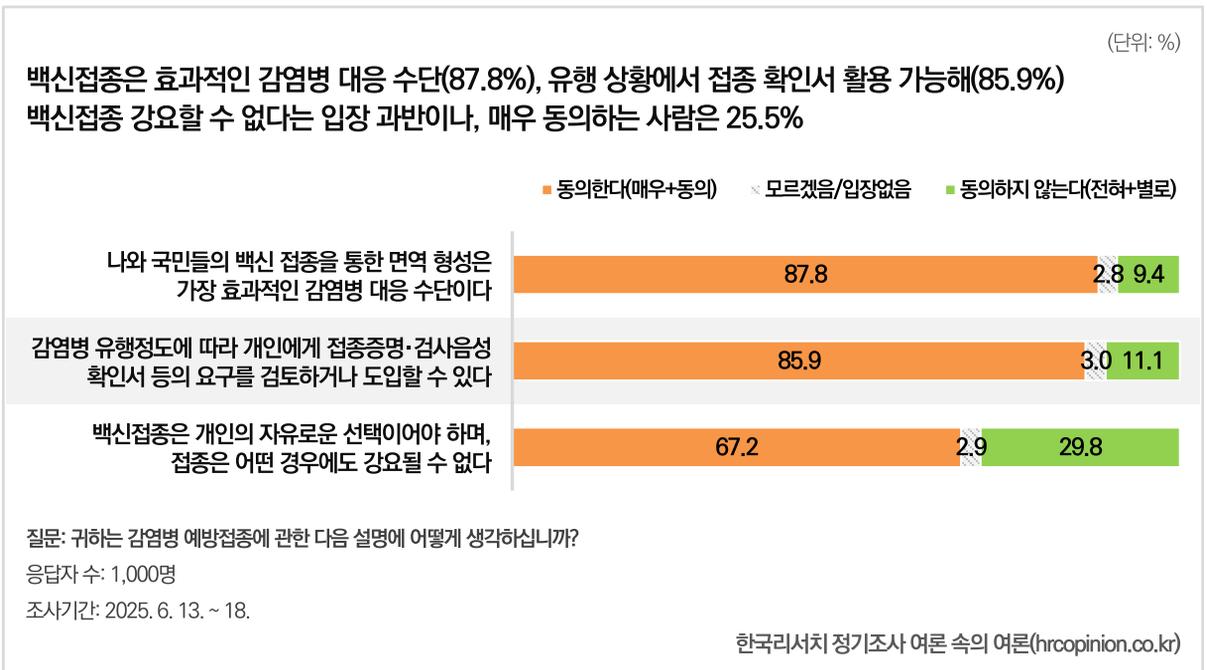
6

예방접종 참여의향

10명 중 8명 이상, 백신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이고 접종증명서 요구 가능해 접종 강요할 수 없다, '매우 그렇다' 동의하는 사람은 25.5%에 그쳐

백신접종 관련 인식을 접종 효과, 활용, 강제력 측면에서 확인해 보았다. '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이라는 데 87.8%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45.6%+약간 동의함 42.2%). '감염병 유행 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접종증명·검사음성확인서 등의 요구를 검토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는 진술에도 85.9%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35.6%+약간 동의함 50.3%). 90%에 달하는 사람들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백신접종을 지목하고 있으므로, 유행 상황에서 접종 확인서 등을 방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며, 접종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다'는 데에는 67.2%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25.5%+약간 동의함 41.7%). 과반이 강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나 이 중 매우 동의하는 사람은 25.5%에 그친다. 또한 백신접종의 효과와 활용적 측면 대비 접종 자율성에 대한 동의 응답이 낮은 편이다. 개인의 자율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백신 접종이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접종이 불가피하며, 접종 증명서 등의 활용 또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된다.

모든 세대에서 백신접종 효과성과 방역 활용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세대가 올라갈수록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50대 이상에서 백신 효과성에 매우 동의하는 응답이 50%를 상회한다(50대 50.8%, 60대 53.5%, 70세 이상 55.4%). 증명서 활용에 있어서 18~29세는 30.0%만이 매우 동의하는 반면, 70세 이상은 40.1%가 강하게 동의한다.



(단위: %)

백신접종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87.8%), 유행 상황에서 접종 확인서 활용 가능해(85.9%)
백신접종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 과반이나, 매우 동의하는 사람은 25.5%

사례수 (명)	나와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은 가장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수단이다		감염병 유행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접종증명· 검사음성확인서 등의 요구를 검토하거나 도입할 수 있다		백신접종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어야 하며, 접종은 어떤 경우에도 강요될 수 없다	
	매우 동의	동의 (매우+약간)	매우 동의	동의 (매우+약간)	매우 동의	동의 (매우+약간)
전체 (1,000)	45.6	87.8	35.6	85.9	25.5	67.2
성별						
남성 (495)	49.5	88.5	37.0	87.9	25.3	66.2
여성 (505)	41.8	87.2	34.3	84.0	25.8	68.3
연령						
18-29세 (151)	35.5	83.1	30.0	85.1	28.7	67.1
30대 (150)	38.7	81.3	31.1	83.3	32.4	71.6
40대 (172)	37.7	85.1	37.4	84.1	28.7	73.9
50대 (195)	50.8	92.0	35.6	89.5	20.2	65.5
60대 (178)	53.5	91.6	38.6	85.9	23.1	66.6
70세 이상 (154)	55.4	92.2	40.1	86.7	21.8	58.7

질문: 귀하는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설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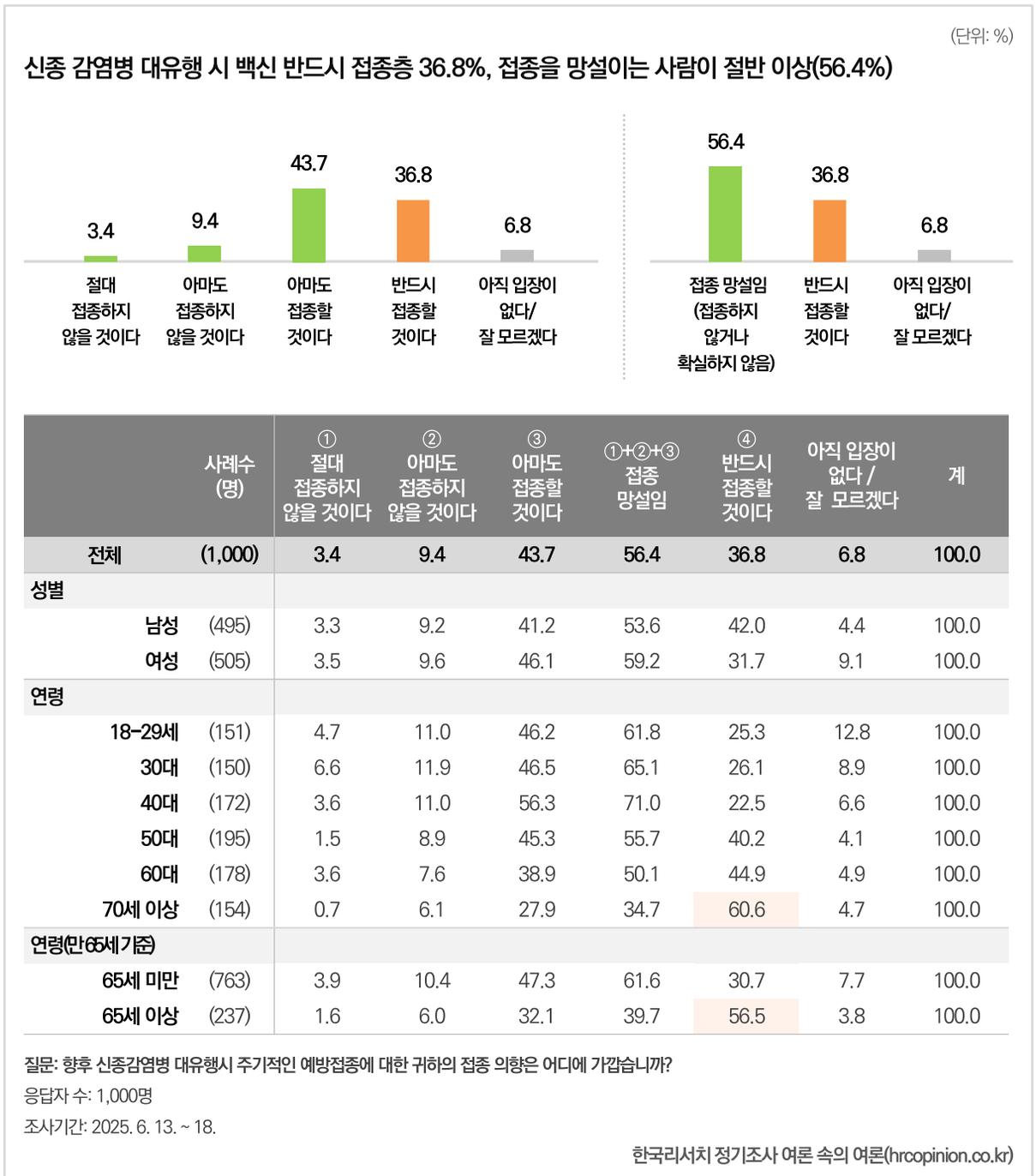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향후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에 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것’ 36.8%, ‘접종 망설임’ 56.4%

향후 신종 감염병 대유행 시 주기적인 예방접종에 관한 접종 의향을 확인했다. 10명 중 3~4명 가량은 ‘반드시 접종할 것(36.8%)’이라고 답했다. 반면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이 56.4%로 과반이다. ‘절대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비접종의향자는 3.4%, ‘아마도 접종하지 않을 것이다’ 9.4%이다. ‘아마도 접종할 것’이라고 답하며 접종을 망설이는 사람은 43.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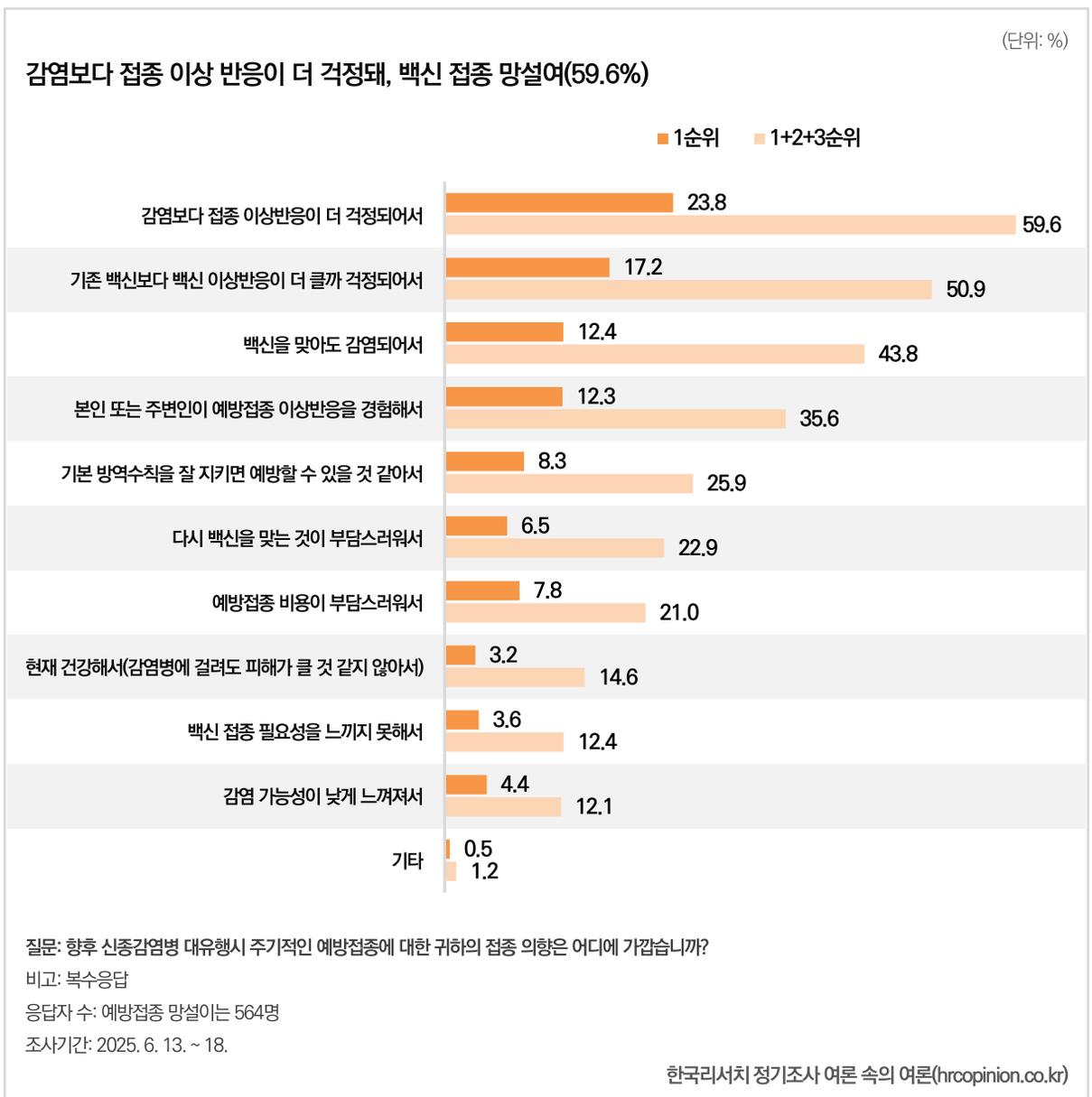
백신접종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응답자 중 ‘반드시 접종할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56.5%로 과반이다. 반면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61.6%는 접종을 망설인다고 답했다.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감염보다 접종 이상 반응이 더 걱정(59.6%)’

예방접종을 망설이거나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564명에게 그 이유를 확인했다. 가장 주된 이유는 ‘감염보다 접종 이상반응이 더 걱정되어서(59.6%, 1+2+3순위 복수응답)’이다. 이어서 2명 중 1명이 ‘기존 백신보다 백신 이상반응이 더 클까 걱정되어서(50.9%)’이다. 다음으로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어서(43.8%)’, ‘본인 또는 주변인이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해서(35.6%)’ 망설인다고 답했다. 10명 중 2명 가량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25.9%)’, ‘다시 백신을 맞는 것이 부담스러워서(22.9%)’, ‘예방접종 비용이 부담스러워서(21.0%)’를 이유로 꼽는다.

세대별로 접종을 망설이는 이유에 차이가 있다. 18~29세 응답자 5명 중 1명은 ‘접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22.6%)’ 접종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대 중 가장 높다. 30대 응답자 중 54.6%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 되어서’라고 답했다. 이는 30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이고, 전체 응답을 상회한다. 50대 이상 응답자 중 40% 가량은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해서’ 접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70세 이상은 앞서 반드시 접종층을 이루는 주된 세대임과 동시에, ‘기본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40.5%로 세대 중 가장 높다.



(단위: %)

감염보다 접종 이상 반응이 더 걱정돼, 백신 접종 망설여(59.6%)

'1+2+3순위' 응답	사례수 (명)	감염보다 접종 이상 반응이 더 걱정되어서	기존 백신보다 백신 이상 반응이 더 클까 걱정되어서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어서	본인 또는 주변인이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경험해서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백신을 맞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방접종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현재 건강해서 (감염병에 걸려도 피해가 클 것 같지 않아서)	백신 접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감염 가능성이 낮게 느껴져서	기타
전체	(564)	59.6	50.9	43.8	35.6	25.9	22.9	21.0	14.6	12.4	12.1	1.2
성별												
남성	(265)	56.9	44.7	39.5	34.4	26.8	23.3	23.9	18.6	15.7	14.6	1.4
여성	(299)	62.0	56.3	47.6	36.6	25.1	22.6	18.3	11.0	9.5	9.9	1.0
연령												
18-29세	(93)	61.4	51.2	40.5	30.4	20.5	24.3	22.8	10.1	22.6	16.2	0.0
30대	(98)	51.5	42.4	54.6	31.3	24.4	23.1	22.5	19.1	15.8	13.2	2.2
40대	(122)	65.6	53.0	45.4	34.0	21.5	19.7	25.5	12.9	8.5	11.6	2.5
50대	(109)	50.8	50.3	40.2	38.4	28.6	25.3	28.5	16.2	10.6	10.1	0.9
60대	(89)	68.9	58.0	40.2	42.3	27.2	22.9	10.8	8.4	7.4	13.0	0.8
70세 이상	(53)	59.9	50.1	39.5	39.1	40.5	22.7	6.1	25.4	9.7	7.2	0.0

질문: 향후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주기적인 예방접종에 대한 귀하의 접종 의향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예방접종 망설이는 564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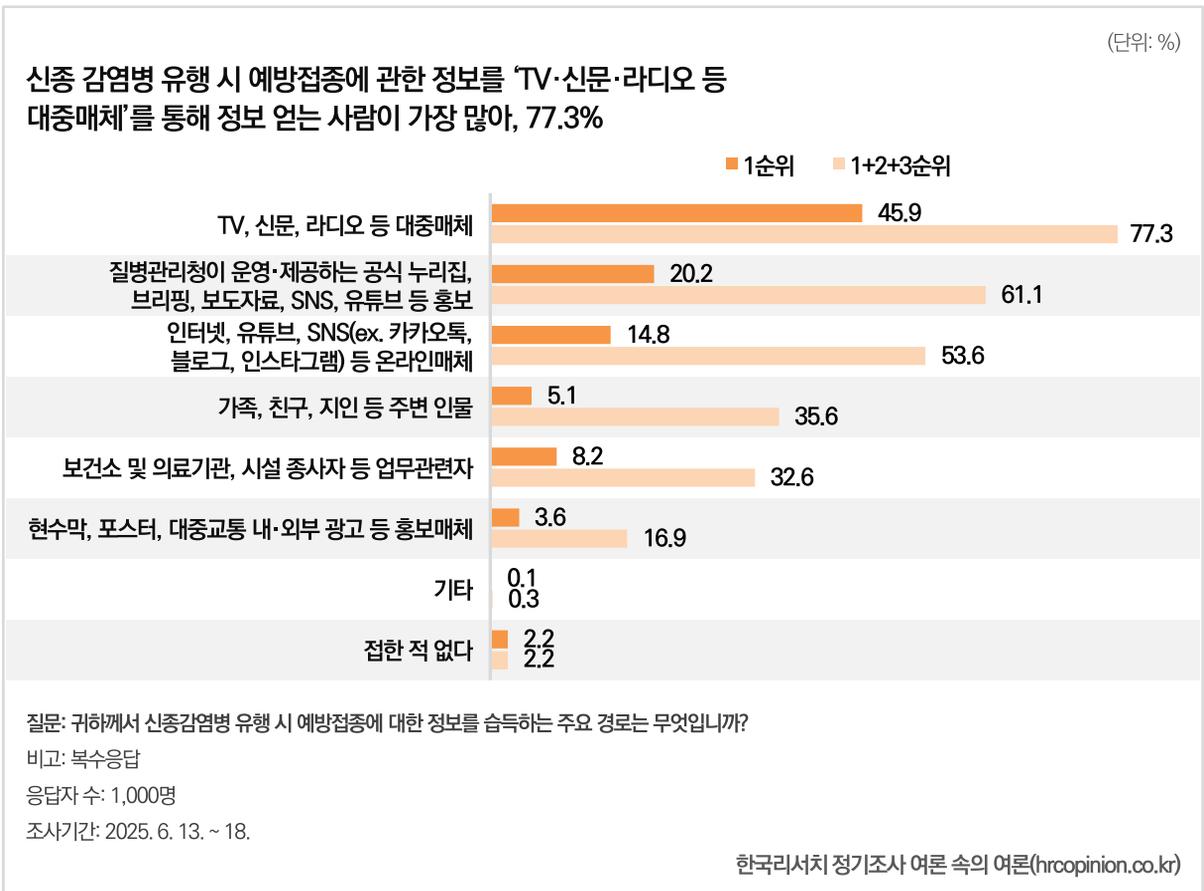
7

감염병 관련 정보 습득 경로 및 보건당국의 정보안내 평가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 'TV·신문·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 얻는 사람이 가장 많아, 77.3% 이어서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누리집, 보도자료(61.1%)' 혹은 '온라인 매체(53.6%)'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어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주로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77.3%, 1+2+3순위 복수응답)'를 통해 습득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질병관리청이 운영·제공하는 공식 누리집, 브리핑, 보도자료, SNS, 유튜브 등 홍보(61.1%)', '인터넷, 유튜브, SNS(ex.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매체(53.6%)'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을 절반 이상으로 높다.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인물(35.6%)', '보건소 및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등 업무관련자(32.6%)', '현수막, 포스터, 대중교통 내·외부 광고 등 홍보매체(16.9%)'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50대 이상은 TV, 신문,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 혹은 질병관리청이 운영 및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이 다수이다. 40대 이하는 온라인매체 이용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SNS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이 50대 이상과 비교했을 때 많다. 60대 중에서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시설 종사자 등 업무관련자를 통해(40.5%), 30대는 현수막, 포스터, 대중교통 내·외부 광고 등 홍보매체(23.6%)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다른 세대 대비 높다.



(단위: %)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TV·신문·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정보 얻는 사람이 가장 많아, 77.3%

‘1+2+3순위’ 응답	사례수 (명)	질병관리청이 운영·제공 하는 공식 누리집, 브리핑, 보도자료, SNS, 유튜브 등 홍보							인터넷, 유튜브, SNS (ex.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매체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인물	보건소 및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등 업무관련자	현수막, 포스터, 대중교통 내· 외부 광고 등 홍보매체	기타	접한 적 없다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												
전체	(1,000)	77.3	61.1	53.6	35.6	32.6	16.9	0.3	2.2					
성별														
남성	(495)	74.4	61.1	57.1	32.9	34.1	16.7	0.3	2.3					
여성	(505)	80.1	61.0	50.3	38.2	31.1	17.0	0.3	2.0					
연령														
18-29세	(151)	63.6	54.1	69.4	39.0	20.8	15.8	0.9	4.8					
30대	(150)	69.1	59.9	59.2	34.2	31.5	23.6	0.9	2.6					
40대	(172)	73.8	56.8	56.4	36.3	33.9	13.2	0.0	3.3					
50대	(195)	82.1	63.4	41.6	40.9	33.0	15.5	0.0	2.0					
60대	(178)	86.8	64.0	46.6	29.9	40.5	17.7	0.0	0.6					
70세 이상	(154)	85.6	67.3	53.0	32.7	34.1	16.4	0.0	0.0					

질문: 귀하께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경로는 무엇입니까?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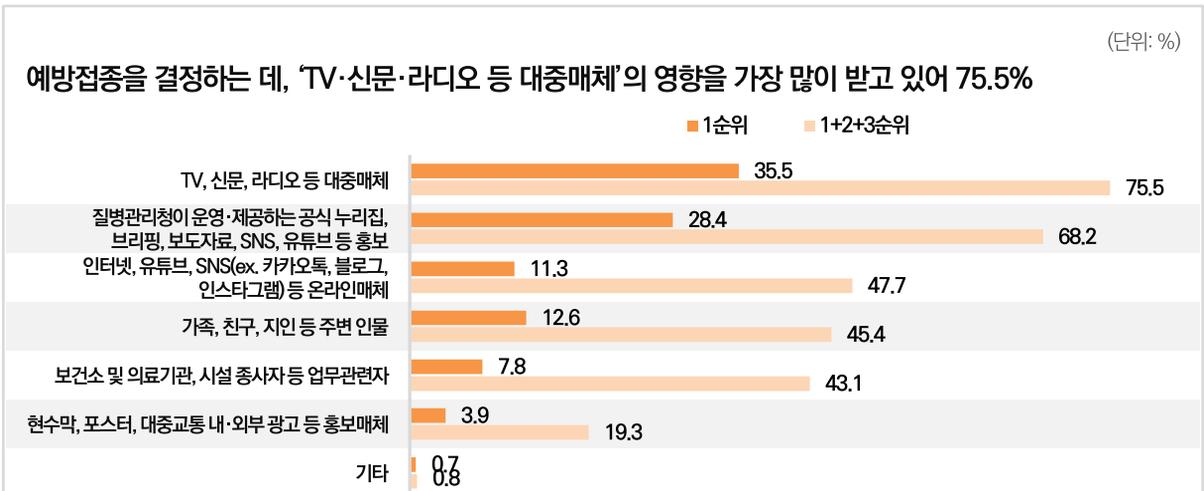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TV·신문·라디오 등 대중매체’가 예방접종에 가장 큰 영향 미쳐, 75.5% 이어서 ‘질병관리청 누리집, 보도자료(68.2%)’, ‘온라인 매체(47.7%)’의 영향을 받고 있어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예방접종을 결정하는 데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 경로는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75.5%, 1+2+3순위 복수응답)’이다. 대중매체는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매체이자 접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로라는 인식이다. 이어서 10명 중 7명이 ‘질병관리청이 운영·제공하는 공식 누리집, 브리핑, 보도자료, SNS, 유튜브 등 홍보(68.2%)’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인터넷, 유튜브, SNS(ex.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매체(47.7%)’,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인물(45.4%)’, ‘보건소 및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등 업무관련자(43.1%)’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친다. ‘현수막, 포스터, 대중교통 내·외부 광고 등 홍보매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사람은 19.3%에 그친다.

50세 이상은 TV, 신문, 라디오 등 전통적 대중매체나 질병관리청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정보를 주로 얻고 해당 매체들이 접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반면, 온라인 매체는 40대 이하 세대의 주요 정보원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얻은 정보가 접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특히 18~29세는 전통매체나 공식 누리집보다 온라인 매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로 나타났다.



'1+2+3순위' 응답	사례수 (명)	TV, 신문, 라디오 등 대중매체	질병관리청이 운영·제공하는 공식 누리집, 브리핑, 보도자료, SNS, 유튜브 등 홍보	인터넷, 유튜브, SNS (ex. 카카오톡,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매체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 인물	보건소 및 의료기관, 시설 종사자 등 업무관련자	현수막, 포스터, 대중교통 내·외부 광고 등 홍보매체	기타
전체	(1,000)	75.5	68.2	47.7	45.4	43.1	19.3	0.8
남성	(495)	73.4	72.4	48.4	41.4	41.5	21.9	1.0
여성	(505)	77.5	64.2	46.9	49.4	44.7	16.7	0.5
18-29세	(151)	62.7	56.0	69.1	50.7	38.5	21.3	1.7
30대	(150)	72.0	66.3	54.1	37.9	45.5	23.1	1.2
40대	(172)	70.1	64.1	50.1	49.6	44.3	21.7	0.0
50대	(195)	77.1	76.0	39.1	49.8	43.2	14.2	0.5
60대	(178)	82.9	72.2	37.9	41.1	44.6	20.6	0.8
70세 이상	(154)	86.8	72.2	40.0	42.5	42.1	15.7	0.7

질문: 귀하께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예방접종을 결정하는 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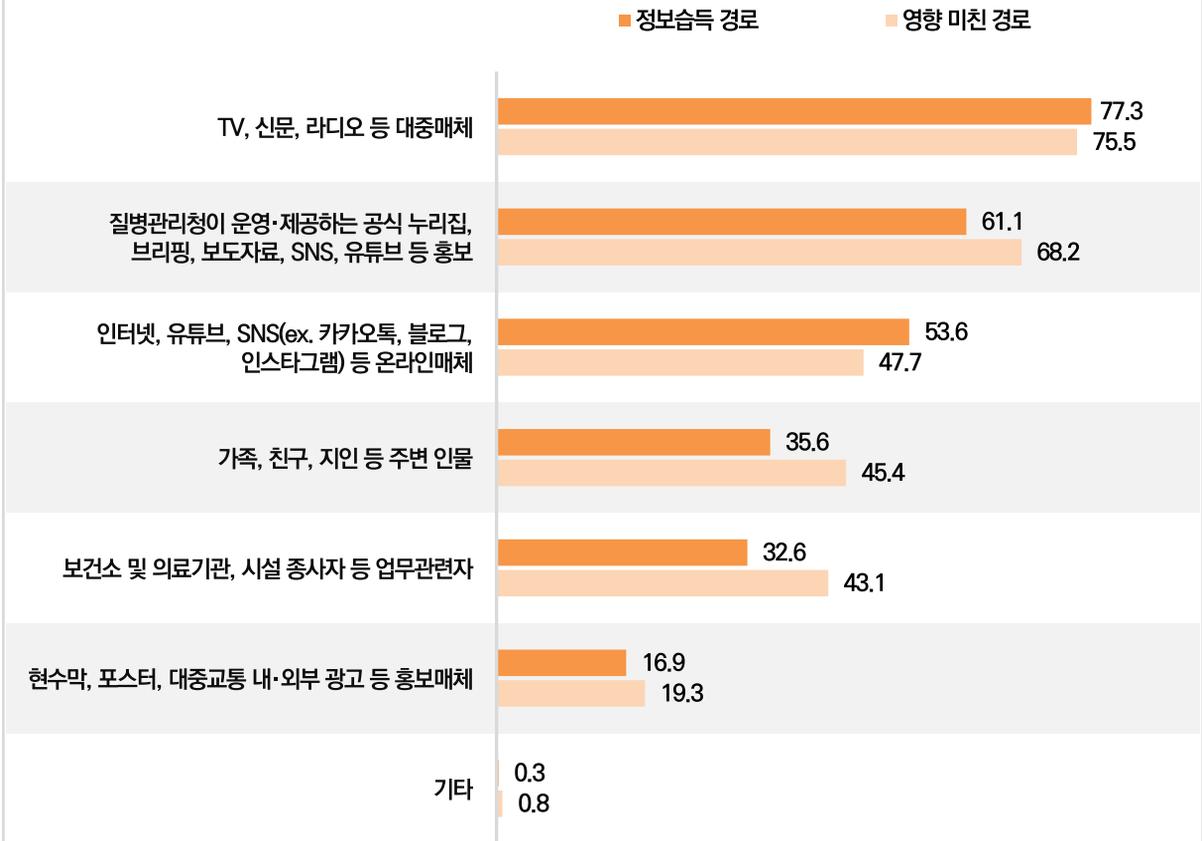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단위: %)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습득하는 매체, 접종 결정에도 큰 영향 주고 있어



질문: 귀하께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주요 경로는 무엇입니까? / 귀하께서 신종감염병 유행 시 예방접종을 결정하는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무엇입니까?

비고: 1+2+3순위 응답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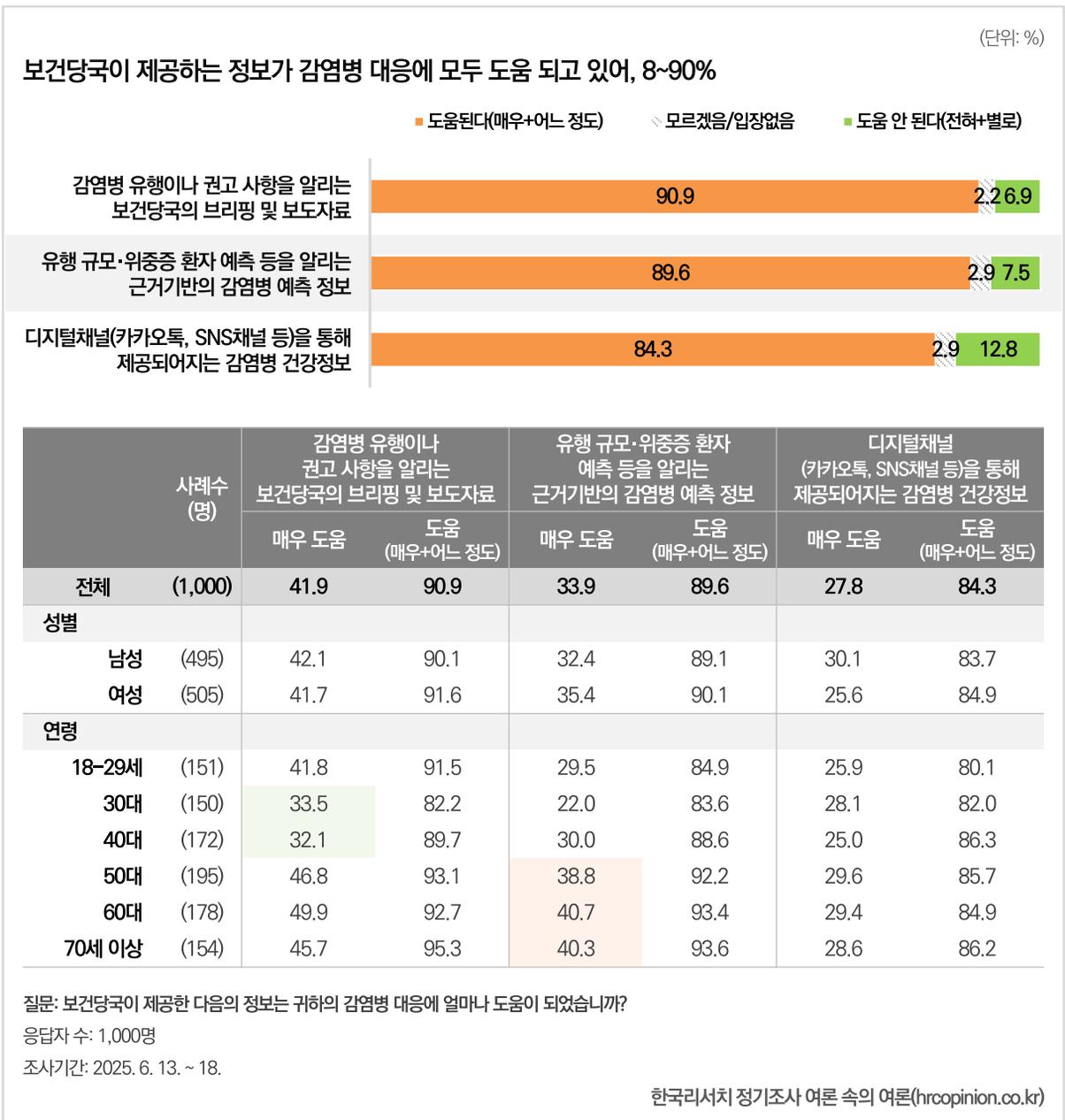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10명 중 8~9명,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감염병 대응에 모두 도움 되고 있어 '보건당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가 가장 큰 도움이 돼(90.9%)

10명 중 8~9명은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감염병 유행이나 권고 사항을 알리는 보건당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90.9%, 매우 도움이 됨 41.9%+어느 정도 도움이 됨 49.0%)'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이어서 '유행 규모·위중증 환자 예측 등을 알리는 근거기반의 감염병 예측 정보(89.6%, 매우 도움이 됨 33.9%+어느 정도 도움이 됨 55.7%)', '디지털채널(카카오톡, SNS채널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감염병 건강정보(84.3%, 매우 도움이 됨 27.8%+어느 정도 도움이 됨 56.5%)'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도 80%를 상회한다.

50대 이상은 보건당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 근거기반의 감염병 예측 정보가 감염병 대응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을 상회한다. 보건당국의 브리핑 및 보도자료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0% 이상으로 가장 높지만, 30대와 40대가 이를 통해 매우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응답은 30%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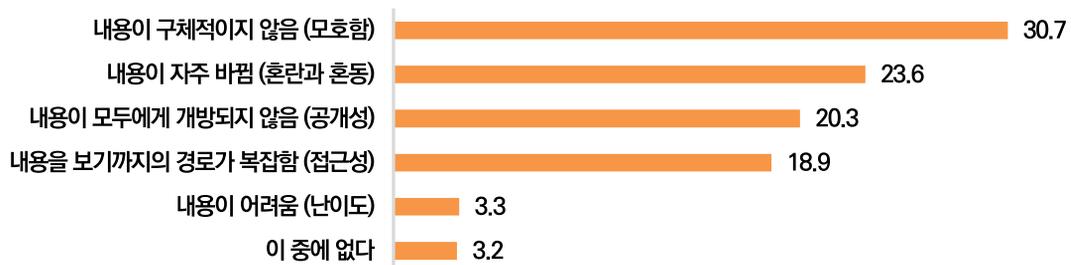
보건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30.7%)’ 이어서 ‘내용이 자주 바뀌어서(23.6%)’, ‘내용이 모두에게 개방되지 않는 점(20.3%)’도 지적해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브리핑 및 보도자료, 감염병 예측 정보, 감염병 건강정보) 중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18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확인해 보았다. 10명 중 3명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모호함)(30.7%)’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가장 주된 이유로 언급되었다. 이어서 ‘내용이 자주 바뀜(혼란과 혼동)(23.6%)’, ‘내용이 모두에게 개방되지 않음(공개성)(20.3%)’, ‘내용을 보기까지의 경로가 복잡함(접근성)(18.9%)’, ‘내용이 어려움(난이도)(3.3%)’ 순이다.

18~29세는 ‘접근성(36.8%)’을, 40대는 ‘공개성(38.6%)’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한다. 50대의 절반 가량(53.2%)은 ‘모호함’을 주요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 모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모호하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문제로 꼽는다.

(단위: %)

보건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30.7%)’ 10명 중 2명, ‘내용이 자주 바뀜(23.6%)’ 혹은 ‘내용이 모두에게 개방되지 않아(20.3%)’



보건당국 제공 정보 도움 안 됨	사례수 (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모호함)	내용 자주 바뀜 (혼란과 혼동)	내용이 모두에게 개방되지 않음 (공개성)	내용을 보기까지의 경로가 복잡함 (접근성)	내용이 어려움 (난이도)	이 중에 없다	계
전체	(184)	30.7	23.6	20.3	18.9	3.3	3.2	100.0
성별								
남성	(93)	31.6	21.7	26.9	12.3	3.1	4.3	100.0
여성	(91)	29.8	25.5	13.7	25.6	3.5	2.0	100.0
연령								
18~29세	(29)	20.1	23.0	16.4	36.8	3.7	0.0	100.0
30대	(32)	28.8	26.0	10.2	22.1	6.8	6.1	100.0
40대	(31)	23.2	24.8	38.6	9.8	0.0	3.6	100.0
50대	(33)	53.2	23.5	14.5	8.8	0.0	0.0	100.0
60대	(32)	24.5	23.3	31.4	12.3	8.5	0.0	100.0
70세 이상	(26)	33.6	20.3	9.4	26.3	0.0	10.4	100.0

질문: 보건당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비고: 표연령은 표본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

응답자 수: 보건당국이 제공한 정보가 도움 안 된다고 평가한 184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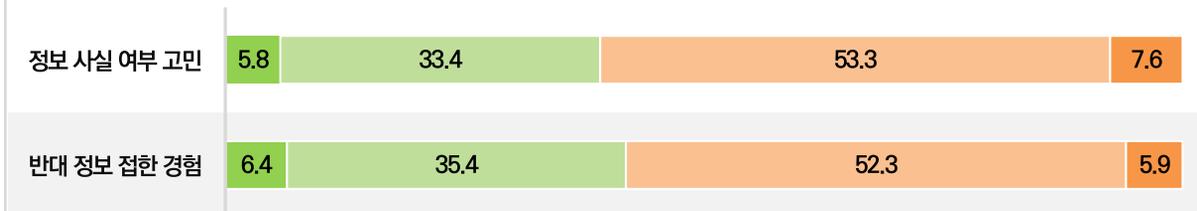
10명 중 9명,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접할 때 ‘사실 여부를 고민하거나(94.2%)’, ‘같은 주제에 대해 반대되는 정보를 접한 경험(93.6%)’ 있어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접할 때, 10명 중 9명 가량은 ‘정보를 접한 후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고민했던 경험(94.2%)’,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서로 반대되는 정보를 접한 경험(93.6%)’이 있다고 답했다. ‘정보를 접한 후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고민했던 경험’이 ‘자주 있다’고 답한 사람은 7.6%이다. 가끔 있다 53.3%와 별로 없다 33.4%까지 모두 더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의 사실 여부에 관해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서로 반대되는 정보를 접한 경험’ 역시 자주 있다고 답한 사람은 5.9% 정도로 많지 않다. 가끔 있다 52.3%, 별로 없다 35.4% 응답을 모두 더하면 대다수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통적으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고민한 경험이나, 반대되는 정보를 접한 경험이 때때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접할 때 ‘사실 여부를 고민하거나(94.2%)’, ‘같은 주제에 대해 반대되는 정보를 접한 경험(93.6%)’ 있어

■ 전혀 없다 ■ 별로 없다 ■ 가끔 있다 ■ 자주 있다



	사례수 (명)	정보 사실 여부 고민				반대 정보 접한 경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체	(1,000)	7.6	53.3	33.4	5.8	5.9	52.3	35.4	6.4
성별									
남성	(495)	6.9	51.0	35.8	6.2	6.6	50.2	37.0	6.2
여성	(505)	8.2	55.5	31.0	5.3	5.2	54.3	33.8	6.7
연령									
18~29세	(151)	14.1	53.4	25.9	6.5	10.5	55.3	27.9	6.3
30대	(150)	9.4	55.5	31.9	3.1	5.4	59.8	28.6	6.2
40대	(172)	6.4	53.9	33.9	5.9	6.4	51.6	36.0	6.0
50대	(195)	5.7	59.3	29.5	5.5	5.0	53.3	36.7	5.0
60대	(178)	6.0	46.3	40.7	7.0	6.3	47.5	38.0	8.1
70세 이상	(154)	4.9	50.8	38.2	6.2	1.9	46.8	44.1	7.2

질문: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접할 때, 다음 각각의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 정보를 접한 후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고민했던 경험
-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서로 반대되는 정보를 접한 경험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8 가짜뉴스 접촉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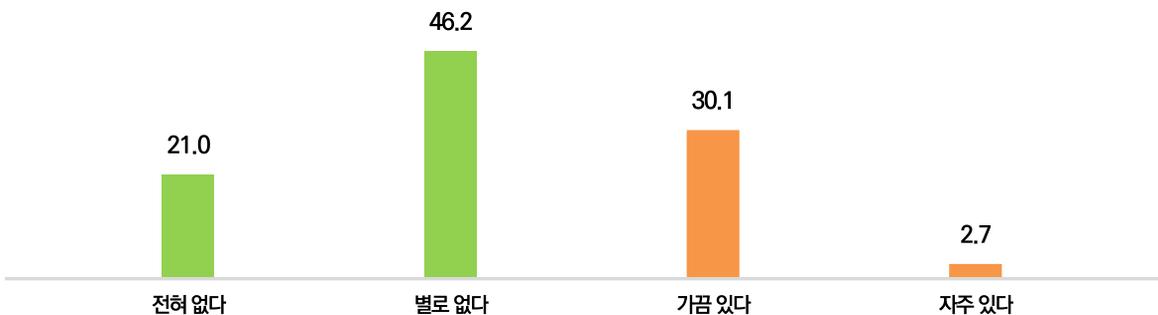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접한 경험은 '자주' 2.7%, '가끔' 30.1%, '별로 없다' 46.2% 주로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하고 있어, 58.8%

최근 1년간 완전히 허위로 밝혀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자주 접한 적 있는 사람은 2.7%로 적지만 '가끔 있다' 30.1%, '별로 없다'는 46.2%를 모두 합하면 접촉 경험이 80%에 달한다(79.0%).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은 21.0%이다.

50대 이상보다 40대 이하에서 가짜뉴스를 '자주' 혹은 '가끔'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높다. 세대 중 30대의 접촉 경험이 43.9%로 가장 높다.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40.5%), 신종 감염병이 공중보건 체계(34.4%) 혹은 사회경제 위협한다(33.6%), 정부가 신종 감염병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51.0%), 방역당국이 국민을 잘 지키지 못한다(40.0%)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신종 감염병 불안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그 외 집단보다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로 인해 감염병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단위: %)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접한 경험 '자주 있다' 2.7%, '가끔 있다' 30.1%, 별로 없다 46.2%



질문: 최근 1년간, 완전히 허위로 밝혀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가짜뉴스 접촉 경험은 신종감염병 관련 다양한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 중에서는 40.5%가 가짜뉴스를 가끔 혹은 자주 접했다고 답했다. 반면 우리나라가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28.9%, 보통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30.5%만이 가짜뉴스를 가끔 혹은 자주 접한다고 답했다.

또한 신종감염병이 우리나라의 공중보건체계 및 사회·경제에 위협적이라고 평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차이도 확인된다. 신종감염병이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에 위협적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34.4%가, 우리 사회·경제에 위협적이라고 보는 사람 중에서는 33.6%가 가짜뉴스를 가끔 혹은 자주 접한다고 답했다. 이는 신종감염병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보다 각각 14.6%포인트, 12.1%포인트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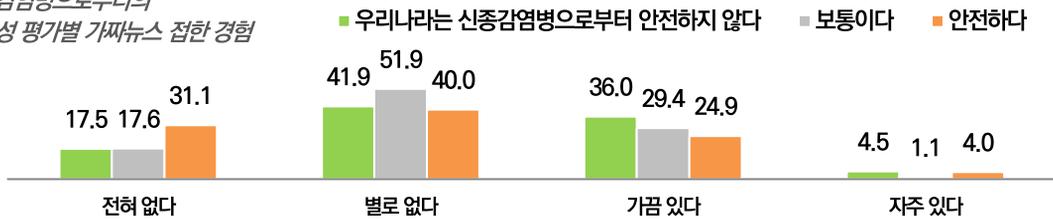
방역당국에 대한 신뢰도와 가짜뉴스 접촉 경험도 관계가 있다. 방역당국이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서 우리 국민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39.9%가 가짜뉴스를 가끔 혹은 자주 접한다고 답한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31.1%가 그렇다고 답했다.

신종감염병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고, 방역당국 신뢰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가짜뉴스를 더 많이 접촉하는 경향을 보인다. 불안감이나 불신이 가짜뉴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거나, 반대로 가짜뉴스에 많이 노출되어 불안감·불신이 커졌을 수도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국민의 불안감이나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을 완화하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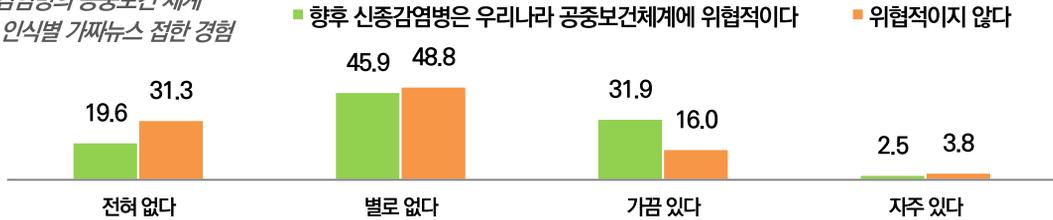
신종감염병 위험성 높게 인식하고, 방역당국 신뢰도 낮을수록 가짜뉴스 접촉 경험도 많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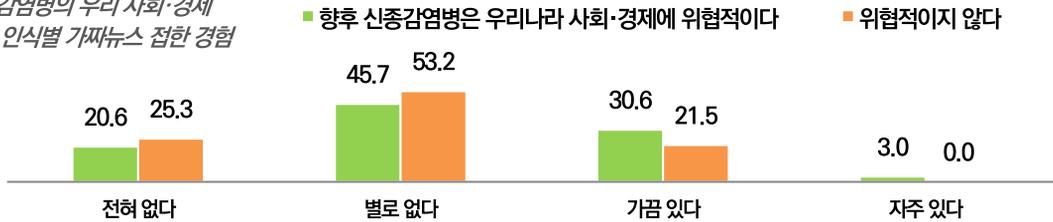
신종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성 평가별 가짜뉴스 접한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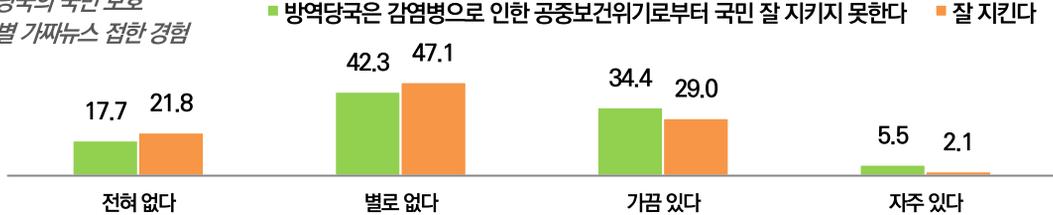
신종감염병의 공중보건 체계 위협 인식별 가짜뉴스 접한 경험



신종감염병의 우리 사회·경제 위협 인식별 가짜뉴스 접한 경험



방역당국의 국민 보호 평가별 가짜뉴스 접한 경험



질문: 최근 1년간, 완전히 허위로 밝혀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단위: %)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접한 경험 '자주 있다' 2.7%, '가끔 있다' 30.1%, '별로 없다' 46.2%

	사례수 (명)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계
전체	(1,000)	21.0	46.2	30.1	2.7	100.0
성별						
남성	(495)	22.7	46.3	28.0	3.0	100.0
여성	(505)	19.3	46.1	32.1	2.5	100.0
연령						
18~29세	(151)	23.6	40.5	30.4	5.4	100.0
30대	(150)	11.9	44.2	38.2	5.7	100.0
40대	(172)	13.3	48.5	35.3	2.9	100.0
50대	(195)	23.8	46.3	29.4	0.5	100.0
60대	(178)	27.9	43.9	26.1	2.1	100.0
70세 이상	(154)	24.4	53.4	21.5	0.7	100.0
신종감염병으로부터 안전성						
안전하지 않다	(272)	17.5	41.9	36.0	4.5	100.0
보통이다	(475)	17.6	51.9	29.4	1.1	100.0
안전하다	(253)	31.1	40.0	24.9	4.0	100.0
신종감염병 공중보건 체계 위협						
위험적이지 않다	(119)	31.3	48.8	16.0	3.8	100.0
위험적이다	(864)	19.6	45.9	31.9	2.5	100.0
모르겠다	(16)	17.8	38.0	38.1	6.1	100.0
신종감염병 사회경제 위협						
위험적이지 않다	(80)	25.3	53.2	21.5	0.0	100.0
위험적이다	(905)	20.6	45.7	30.6	3.0	100.0
모르겠다	(14)	20.4	35.3	44.3	0.0	100.0
정부 신종감염병 대응평가						
잘하고 있다	(365)	22.9	45.0	30.0	2.1	100.0
못하고 있다	(108)	18.4	30.6	46.0	5.0	100.0
모르겠다	(31)	0.0	53.2	43.5	3.3	100.0
정부 대응 노력 모름	(496)	21.5	50.0	25.9	2.7	100.0
방역당국의 국민 보호 평가						
잘 지키지 못한다	(198)	17.7	42.3	34.4	5.5	100.0
잘 지킨다	(802)	21.8	47.1	29.0	2.1	100.0

질문: 최근 1년간, 완전히 허위로 밝혀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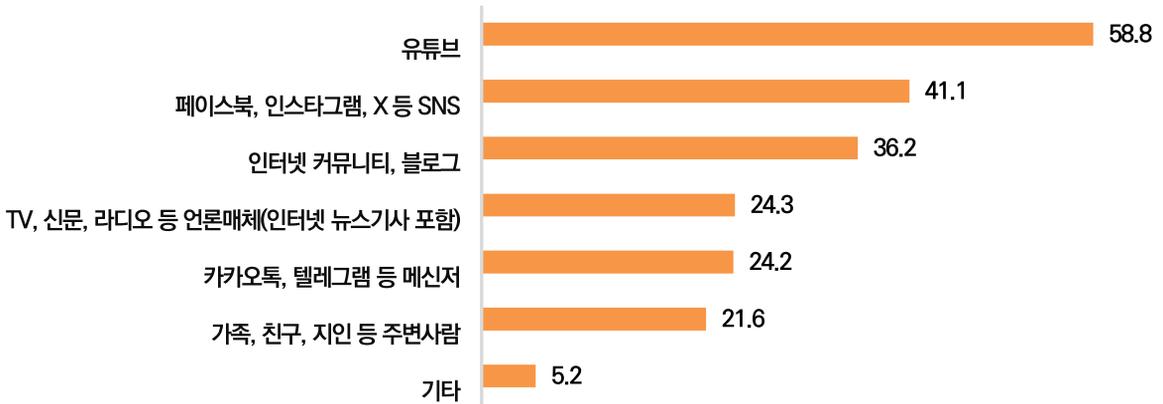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 번이라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 790명(자주, 가끔 있다, 별로 없다)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 접촉했는지 물었다.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접한 사람이 58.8%로 가장 많다. 이어서 10명 중 3~4명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SNS(41.1%)',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36.2%)'를 통해 접했다고 답했다.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인터넷 뉴스기사 포함)(24.3%)',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24.2%)',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21.6%)', '기타(5.2%)'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단위: %)

유튜브를 통해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가장 많이 접해, 58.8%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접한 경험 있음	사례수 (명)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SNS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TV,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 (인터넷 뉴스 기사 포함)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	가족, 친구, 지인 등 주변사람	기타
전체	(790)	58.8	41.1	36.2	24.3	24.2	21.6	5.2
성별								
남성	(383)	62.6	43.0	39.9	27.7	29.3	19.4	3.6
여성	(407)	55.2	39.3	32.6	21.2	19.4	23.6	6.6
연령								
18~29세	(115)	59.1	49.4	39.2	26.8	19.3	20.5	3.8
30대	(132)	44.4	56.6	40.1	20.6	24.4	20.6	5.6
40대	(149)	58.9	43.7	42.4	21.7	27.9	19.3	1.5
50대	(149)	57.4	42.3	28.5	22.6	23.7	15.8	5.9
60대	(128)	73.0	34.5	35.3	21.0	25.4	26.8	5.5
70세 이상	(116)	60.7	17.8	31.5	35.4	23.4	28.3	9.4

질문: 한 번이라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접촉하셨습니다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접한 경험 있는 790명(자주 접함, 가끔 접함, 별로 없음)

조사기간: 2025. 6. 13. ~6.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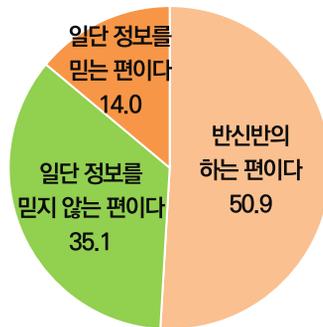
감염병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일단 믿지 않는다’ 35.1%, ‘반신반의한다’ 50.9%, ‘일단 믿는다’ 14.0%

앞서 94.2%는 최근 1년간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접할 때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가 확실치 않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 사실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보를 믿지 않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35.1%이다. ‘반신반의하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50.9%로 절반에 달한다. 이 두 응답을 더하면 85.1%가 정보를 즉시 신뢰하지 않고 사실인지 고민하거나 일단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전체 응답자 중에서 절반 가량이 반신반의한다는 것을 통해 정보에 대한 확실한 판단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일단 정보를 믿는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14.0%로 가장 적다.

40대 이하에서 가짜뉴스를 접한 경험(자주+가끔)이 많은 가운데, 감염병 관련 불확실한 정보를 접했을 때 반신반의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이다. 사실 진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에 대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방어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단위: %)

감염병 관련 정보의 사실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85.1%는 정보를 즉시 신뢰하지 않아



	사례수 (명)	반신반의하는 편이다	일단 정보를 믿지 않는 편이다	일단 정보를 믿는 편이다	계
전체	(1,000)	50.9	35.1	14.0	100.0
성별					
남성	(495)	48.6	35.9	15.4	100.0
여성	(505)	53.2	34.3	12.5	100.0
연령					
18-29세	(151)	52.9	37.9	9.2	100.0
30대	(150)	53.7	32.6	13.6	100.0
40대	(172)	56.6	34.3	9.1	100.0
50대	(195)	49.6	35.6	14.8	100.0
60대	(178)	45.6	35.3	19.1	100.0
70세 이상	(154)	47.9	34.8	17.3	100.0

질문: 감염병 관련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할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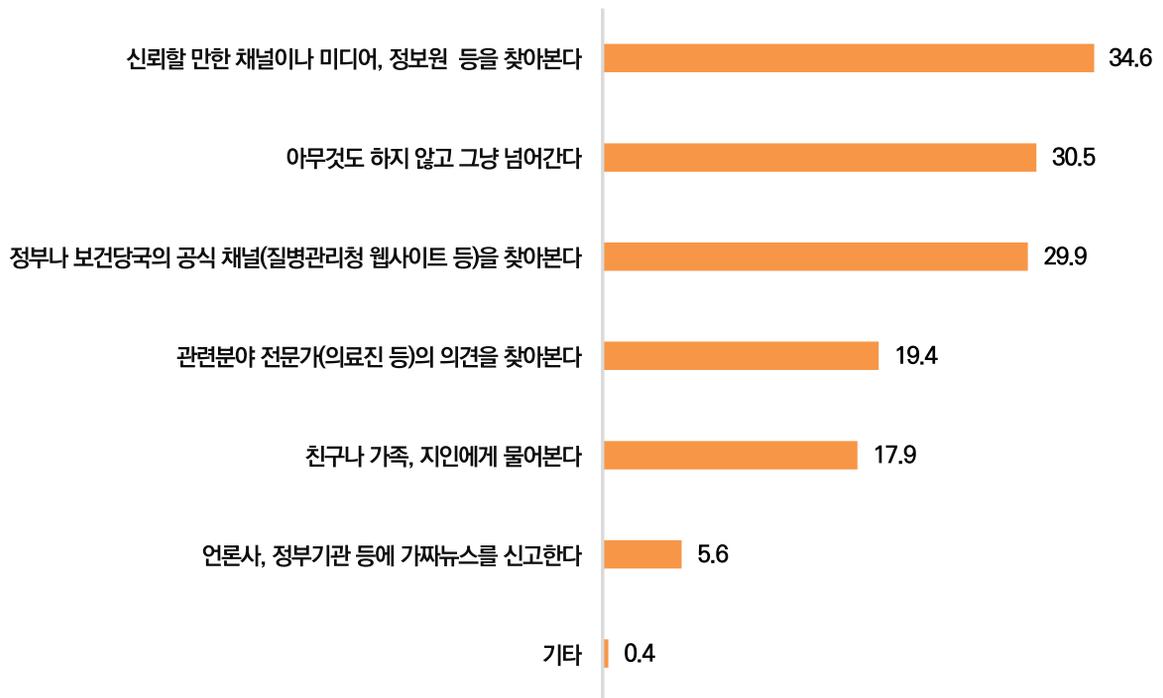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로 '신뢰할 수 있는 채널에서 사실 확인을 한다(34.6%)' '신고'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5.6%에 그쳐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로 '신뢰할 만한 채널이나 미디어, 정보원 등을 찾아본다'는 사람이 34.6%로 가장 많다. 이어서 10명 중 3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30.5%)', '정부나 보건당국의 공식 채널(질병관리청 웹사이트 등)을 찾아본다(29.9%)'고 답했다. '관련분야 전문가(의료진 등)의 의견을 찾아본다(19.4%)',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물어본다(17.9%)'는 10% 내외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행동 유형인 '언론사, 정부기관 등에 가짜뉴스를 신고한다'는 5.6%에 그친다. 신뢰할 수 있는 채널에서 사실 확인을 하거나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대응이 주를 이루고, 신고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40대 이하에서 가짜뉴스 접촉 경험이 40% 내외로 많은 편이다. 그럼에도 가짜뉴스 접촉 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18~29세 38.5%, 30대 39.5%로 세대 중 가장 높고 전체 응답을 상회한다. 이들은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에 관해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이것이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60세 이상은 정부나 보건당국의 공식 채널을 찾아본다는 응답이 각각 35.6%, 37.3%로 높은 편이다.

(단위: %)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로 '신뢰할 만한 채널이나 미디어, 정보원 등을 찾아본다(34.6%)' '가짜뉴스를 신고한다', 5.6%에 그쳐



질문: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단위: %)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로 '신뢰할 만한 채널이나 미디어, 정보원 등을 찾아본다(34.6%)'
'가짜뉴스를 신고한다', 5.6%에 그쳐**

	사례수 (명)	신뢰할 만한 채널이나 미디어, 정보원 등을 찾아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정부나 보건당국의 공식 채널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등) 을 찾아본다	관련분야 전문가 (의료진 등) 의견을 찾아본다	친구나 가족, 지인에게 물어본다	언론사, 정부 기관 등에 가짜뉴스를 신고한다	기타
전체	(1,000)	34.6	30.5	29.9	19.4	17.9	5.6	0.4
성별								
남성	(495)	38.7	30.1	31.3	18.7	17.2	7.2	0.8
여성	(505)	30.5	30.9	28.6	20.1	18.7	4.0	0.0
연령								
18-29세	(151)	35.5	38.5	25.5	16.6	13.2	8.9	0.9
30대	(150)	33.2	39.5	26.4	25.3	19.5	9.0	0.0
40대	(172)	36.4	29.7	27.7	22.0	15.0	5.1	0.0
50대	(195)	37.1	31.7	27.1	18.3	17.7	4.4	0.0
60대	(178)	33.5	25.2	35.6	17.1	20.8	3.9	0.9
70세 이상	(154)	30.9	19.5	37.3	17.7	21.4	2.9	0.6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접촉 경험								
전혀 없다	(210)	24.7	41.1	28.7	14.2	13.1	2.5	1.1
별로 없다	(462)	34.3	31.2	29.7	17.4	18.3	4.2	0.2
자주+가끔 있다	(328)	41.3	22.8	31.1	25.6	20.5	9.4	0.2

질문: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접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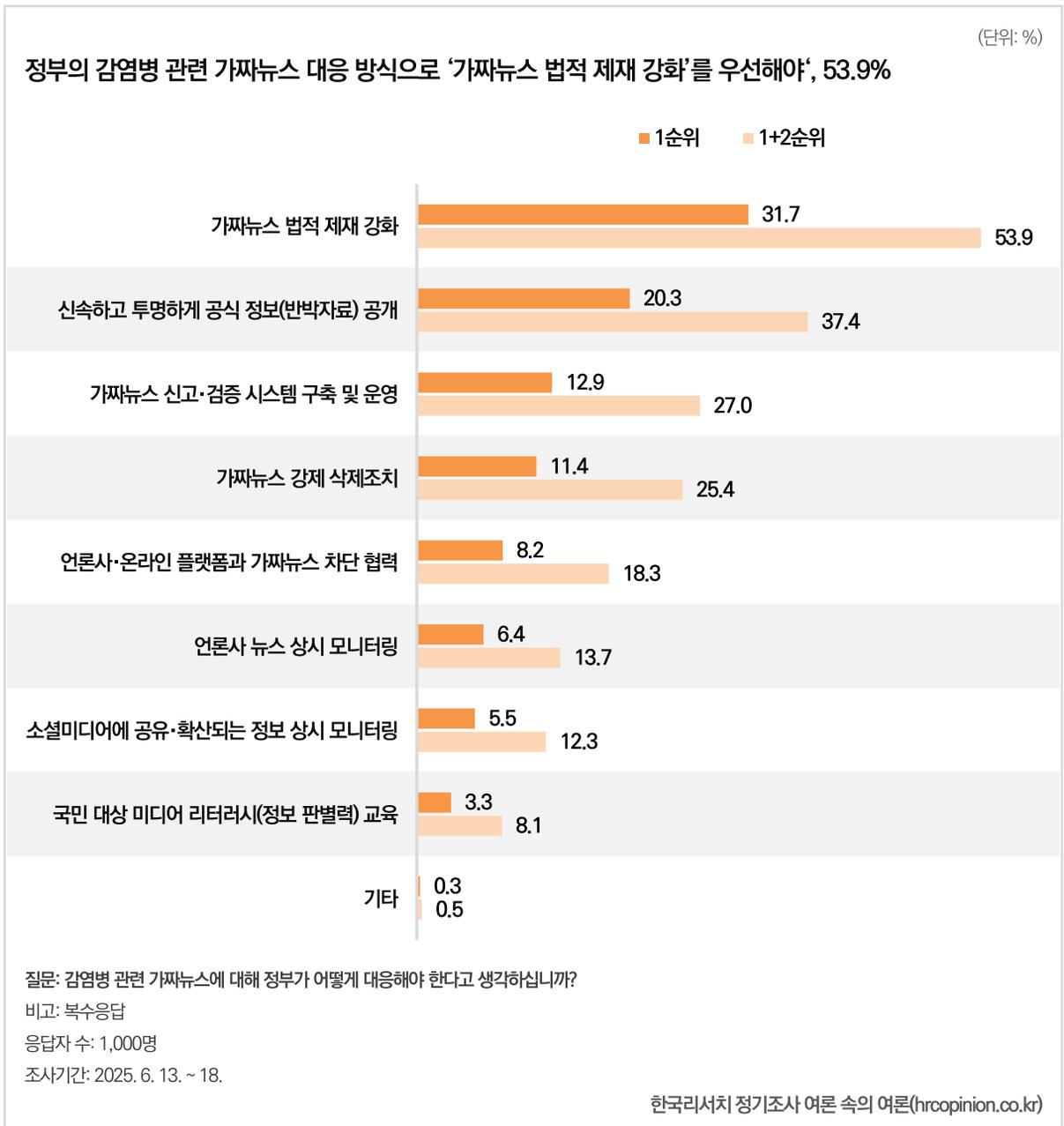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강화(53.9%)’, ‘신속하게 공식적인 정보를 공개(37.4%)’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해

정부의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식으로 ‘가짜뉴스 법적 제재 강화(53.9%, 1+2순위 복수응답)’를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이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식 정보(반박자료) 공개(37.4%)’, ‘가짜뉴스 신고·검증 시스템 구축 및 운영(27.0%)’, ‘가짜뉴스 강제 삭제조치(25.4%)’, ‘언론사·온라인 플랫폼과 가짜뉴스 차단 협력(18.3%)’ 순으로 높다. 주로 강력한 형태의 대응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언론사 뉴스(13.7%)’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확산되는 정보(12.3%)’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치,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정보 판별력) 교육(8.1%)’은 10% 내외 수준이다.

가짜뉴스 접촉 경험 등 세부 집단별 큰 차이 없이 법적인 제재를 강화해야 하거나 공식적인 정보이자 반박 자료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단위: %)

정부의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대응 방식으로 ‘가짜뉴스 법적 제재 강화’를 우선해야, 53.9%

'1+2순위' 응답	사례수 (명)	가짜뉴스 법적 제재 강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식 정보 (반박자료) 공개	가짜뉴스 신고·검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가짜뉴스 강제 삭제 조치	언론사·온라인 플랫폼과 가짜뉴스 차단 협력	언론사 뉴스 상시 모니터링	소셜 미디어에 공유·확산되는 정보 상시 모니터링	국민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판별력) 교육	기타
		전체 (1,000)	53.9	37.4	27.0	25.4	18.3	13.7	12.3	8.1
성별										
남성	(495)	55.8	32.1	28.2	27.6	19.9	12.5	10.7	8.6	0.8
여성	(505)	51.9	42.5	25.9	23.2	16.8	14.9	13.9	7.7	0.2
연령										
18-29세	(151)	49.8	39.1	20.8	27.0	14.1	14.3	17.0	6.8	0.9
30대	(150)	49.6	32.9	30.1	30.8	17.6	10.7	17.7	5.8	0.6
40대	(172)	58.2	28.5	35.9	23.0	14.8	15.0	12.1	9.2	0.5
50대	(195)	56.8	35.9	26.4	28.1	19.0	11.0	10.9	10.1	0.5
60대	(178)	54.5	42.7	27.2	20.9	21.5	15.4	7.8	8.1	0.4
70세 이상	(154)	52.7	45.6	20.8	22.8	22.6	16.0	9.9	8.1	0.0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접촉 경험										
전혀 없다	(210)	57.8	37.8	30.2	23.7	14.2	14.5	10.8	7.8	0.7
별로 없다	(462)	53.0	37.4	24.8	26.0	19.4	13.6	12.0	8.5	0.6
자주+가끔 있다	(328)	52.5	37.0	28.1	25.6	19.5	13.3	13.8	7.9	0.2

질문: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5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5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17,566명, 조사참여 1,915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5.7%, 참여대비 52.2%)
조사일시	• 2025년 6월 16일 ~ 6월 1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